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獨、汽船臨檢事件으로 西政府에 嚴重抗議

正式陳謝와 將來保障을 要求

獨逸國內輿論俄然硬化

【伯林二十日發同盟】카메룬號의 不法臨檢事件이 한번 傳하자 獨逸國內의 輿論은 俄然 硬化하게 되엇는데 政府當局도 西班牙赤色政權의 여러차례의不法行動에 事態를 重視하고 爲先마드리드駐西班牙代理大使에게 如左한 抗議를 西班牙政府에 提出케하엿다

一、西班牙巡洋艦리베르타드와 潛水艦B6의 카메룬號에 對한 行動은 明白히 國際法違反이다 獨逸政府는 同樣의 事件이 再次 發生하는것을 阻止하기 爲하야 一切의 手段을 講究하도록 獨逸海軍에 訓令하엿다

一、今後 再次 同樣의 事件이 起할 境遇에는 右事件에 基한 一切의 結果에 關해서는 西班牙政府가 全責任을 負하지안흐면안된다

同時에 獨逸政府當局은 西班牙出動艦隊司令長官카ー루스提督에 對하야 情勢推移에 應하야 臨機實力을 發動할 權限을 賦與하고 如左히 訓令하엿다

西班牙領海外에서는 一切의手段을 講究하야 獨逸商船을保護하라

히틀러總統은 山莊에 滯在하야 當局의 報告를 基礎로 對策을 指令하고잇는모양이나 態度는 極히 强硬하야 카메룬號에 關하야

一、西班牙政府의 正式陳謝

一、將來의保障을 確保치안는限 佛國政府의 不干涉協約案에 協力치안흘 意向이라고한다

獨逸政府當局은 右方針下에 目下英佛兩國政府와 折衝을 進行하야 英佛兩國政府는 西班牙政府와 折衝中인데 獨逸外務當局은 事態가 容易치안흘것을 示唆하고 二十日夜 如左히 言明하엿다

카메룬號事件은 일픈 成立되어가던 不干涉協約案에 對하야 一大打擊을 與하엿다 히틀러總統은 武器輸出禁止를公約하거나 乃至 考慮함에압서 爲先 카메룬號에 關하야 西班牙政府의 陳謝와 保障을要求하고잇다 카메룬號事件이 滿足히 解決되지안는限 佛國政府의 提案을 考慮할수는업다

(漫畫는 히틀러總統)

카號事件에 獨司令官抗議

【伯林二十日發同盟】獨逸地中海艦隊司令長官 콜프·카ー르提督은 十九日 카메룬號事件에 關하야 西班牙地中海艦隊司令官에 對하야 嚴重한抗議를 通達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세빌리아港의 아로미란테號의 不法事件이 겨우 解決된 今日 再次 西班牙領海外에서 西班牙巡洋艦 리베르타드號가 獨逸汽船 카메룬號에 不法砲擊을 加하고 武裝兵으로써 臨檢하엿다 리베르타드號의 行動은 公海自由의原則에 對한 侵犯이다 獨逸政府는 此種實力行動을 默殺할수없다 本官은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貴下各艦艇에 西班牙海軍의 不法實力行動에는 實力으로써 應酬하도록 訓令하엿다 右通告하는 光榮을가진다

勞働義勇軍組織 國務會議서決定

【마드리드十九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十九日 히랄首相司會下에 國務會議를 開催하고 救亂對策에 關하야 協議를 遂한結果 下院議長바리오스氏에게 全國的으로 勞働義勇軍을 組織할것을 委囑하기로 決定하엿다 同時에 叛軍에 加擔한 官吏의 處分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브레이멘駐剳領事알다소로氏、伯林大使館書記官지ー사氏外 大審院判事十名等을 一齊히 罷免하엿다

獨小型戰艦 西班牙로向發 居留民保護次

【伯林廿日發同盟】獨逸海軍精銳小型戰艦아드미랄、그라프、스페드乙級巡洋艦 쾰른號 라이프號 팔케號 아팔號 불프號는 司令長官벰提督指揮下에 十九日 킬及 뷜헬름스하펜兩海軍根據地를 出發하야 擾亂地西班牙近海로 向하얏다 獨逸政府의 發表에 依하면 新艦隊는 西班牙近海에 到着한다음 이미 出動한 小型戰艦도이췰란드號以下 九隻과 交代하야 居留民保護의 任務에 當하리라하는데 도이췰란드號는 九月初까지 西班牙近海를 떠나지 안흘것이라 結局 小型戰艦三隻을 비롯하야 新獨逸艦隊의 主力艦은 西班牙近海에서 待機하면서 海上으로부터 示威行動을 繼續하게될것이다

歐洲事態緊迫에 伊、募兵除隊延期

陸海空軍全部에適用

【羅馬二十日發同盟】伊太利政府當局은 西班牙內亂其他 歐洲政局의 緊迫의 現狀에 鑑하야 一九三四年度募兵의 除隊를 無期延期하겟다는旨를 發表하엿다 그리고 陸海空各軍에도 全部適用하는것이다

米政府、調停案 正式拒否通牒

【華盛頓二十日發同盟】米國政府는 西班牙內亂調停案에對하야 慎重檢討한結果 右提案을 拒否하기로 決定하고 二十日午後 우루과이政府에 對하야 左의通牒을 發하엿다

米國政府는 傳統的으로 外國의紛爭에 對하야 不干涉方針을 堅持하고 잇는데 西班牙內亂에 對하여도 右政策을 放棄할 必要를 認定치안코 우루과이政府 今回의提案에 對하여는 同意하기困難하다

叛軍側의 報道는 官軍殘虐을 指摘

各自有利한宣傳으로情勢는混沌

리스본方面의 通信要旨

【리스본二十日發同盟】西班牙動亂에 關하여는 政府軍、叛亂軍이 各其 自派에 有利한 宣傳을하고 잇기 때문에 情勢는 混沌하야 窺知를 不許하는데 二十日 當地에 達한 叛軍側의 報道를 要約하면 如左하다

一、叛軍은 十九日 라다르(마드리드南西百二十哩)要塞附近의 重要建築物을 完全히 占領하엿다 右戰鬪에서 政府軍飛行機는 附近의 僧院에 爆擊을加하야 이를 灰燼에 歸케하엿다

一、알멘드라헤(西葡國境)의 政府軍은 八百의 叛軍捕虜를산채로 石油를 끼언저 燒殺하엿다 그中에는 八十一歲의 僧侶도 잇섯다

一、마요르카島의 叛軍은 同島에 上陸한 政府軍三千五百名中 二千五百名을 殲滅하고 殘餘를 潰走케하엿다

一、마드리드附近의 戰鬪에서 叛軍은 政府側民兵軍을 擊破하야 政府軍은 死體八百과 武器彈藥을 多數遺棄하고 潰走하얏다

一、카디스港에서는 政府軍은 少年少女까지 動員하야 木銃을 配給해서 抵抗케하고잇다

結局伊도屈服? 不干涉案에 英奔忙

【倫敦十九日發同盟】西班牙內亂을 圍繞한 國際政局의 危機를 앞두고 이든英外相은 國璽尙書 할리팍스氏와 자조 局面打開를 企圖中인데 結局 不干涉案을 成立시킨後 米國政府와 라틴아메리카諸國의 居中調停에 依하는 以外에 骨肉相食의 內亂을 解決할 方策이 업다는意向이라고 보인다 不干涉案에 對해서는 伊太利政府는 依然難色을 示하고잇는데 스트레자戰線을 基調로한 英佛兩國政府의 外交的重壓에 依하야 結局 讓步할것이라고 보고잇는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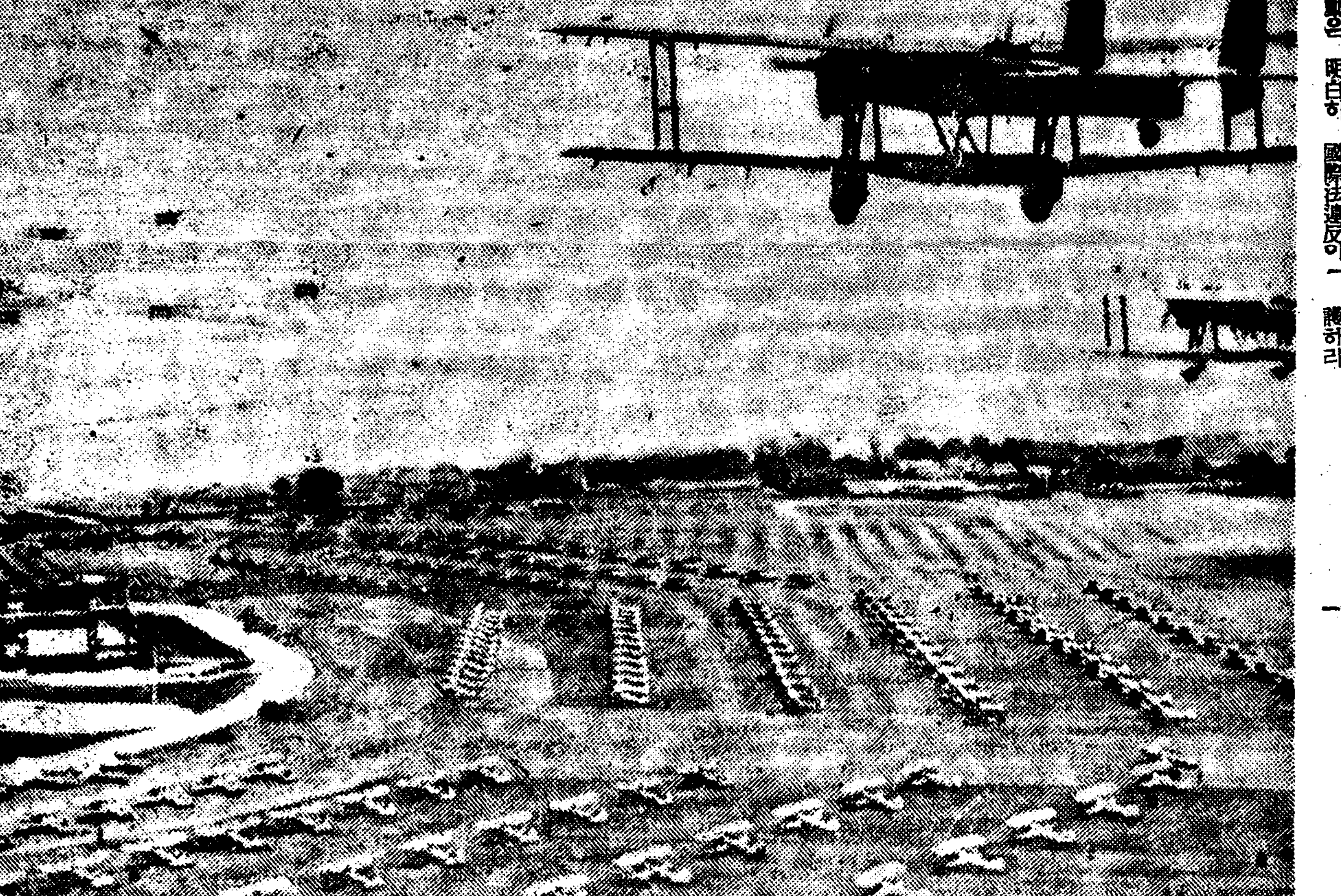
汎歐洲聯盟會長 兩軍首腦에 提言

居中調停에 出馬

【維也納二十日發同盟】骨肉相爭하는 西班牙內亂을 憂慮한 汎歐聯盟會長쿠덴호베칼레르기伯은 마침내 居中調停에 着手하야 二十日 西班牙大統領아자니아氏、首相히랄氏及 叛軍總司令모라將軍、叛軍國防委員長카바네라스將軍에게 左와如히 提言하엿다

一、內亂의 參加를 防止하기爲하야 政府軍、叛軍에 和平解決을 勸告함

一、和平交涉開始의 前提條件으로 兩軍은 即時休戰하기를 要望함



◇空軍中心으로 轉換한 英國=世界的으로 海軍制霸를 자랑하던 大英帝國도 伊에 紛爭에잇서서 地中海艦隊가 伊空軍勢力에게 脅威를바다 그弱點을 如實히 暴露하야 마침내 英國으로하여곰 大大的軍備擴充에 着手케하는同時에 그中心을 空軍에두게하엿다 英國은 今後現有空軍勢力의 三倍를目標로 目下 그擴張에 注力中이다 寫眞은 英國航空隊

鹽、食料品移出禁止 廣西에經濟封鎖?

急速한武力行使는極力回避

蔣介石氏對策에腐心

【廣東發】蔣介石氏는 廣東에 到着한 以來 廣西問題의 全面的解決을 圖하기爲하야 連日側近者와 鳩首協議를 繼續하면서 對策에 腐心하고잇다 中央側이 提示한 最後的 通告에 對하야 廣西側이 아직도 이를 受諾치안코 態度를 明白히 하지안는 境遇에는 既定方針에 依하야 斷乎措置를 取할것이라 當場의 觀測을 綜合하면 中央側은 即時武力行使를 取하지안코 爲先 鹽食料品等 廣西로가는 移出을 禁止하야 經濟封鎖를 斷行하리라고 觀測되다 그리고 中央側에서는 和平解決의 最終的企圖로 居正을 廣西에 特派할意向이라고 解釋되는데 梧州로부터온 中國側의 報道에 依하면 廣西軍은 繼續南進中이라하며 또 北海附近에서 衝突하야 이러낫다고 報道한다 英字紙도 亦是 一齊히 李白의 抵抗決意를 傳하야 形勢는 刻刻으로 惡化되고잇다

川越大使離平 天津서領事會議

【北平二十日發同盟】川越大使는 新任人事와 宋哲元氏等 冀察政權首腦部와 北中經濟開發에 關한 重要意見交換을 終了하엿스므로 二十日午後四時 日中官民多數의 餞送을 바드며 離平하야 天津에 赴任하야 同大使는 二十一日부터 三日間에 亘하야 北中領事會議를 開하고 各地의 實情을 聽取하야 北中經濟開發問題를 中心으로한 根本方針等을 指示하는同時에 田代駐屯軍司令官以下 天津軍首腦部와 北中對策에 關한 重要協議를 할터이다

知事會議招集? 中樞院會議는十月

南、大野新首腦部의新施政方針에 關해서는 各方面으로부터 자못注目되고잇는데 新首腦部는 着任後新政策을 樹立키爲하야 知事會議를 招集할 模樣이다 即各道知事는 總督總監着任後 人事次上京하므로 그機會에 各局長으로부터 所管事務에 關한 詳細한說明을 聽取하게 되는지는 不明이나 如何턴 訓示와함께 今後에 對한 新方針을 授하기爲한 最初의 知事會議는 早晩 九月下旬까지에는 開催될模樣이다 또 中樞院會議는 七月開催豫定을 延期하얏스므로 新首腦部는 知事會議와 前後하야 招集할것으로보이는데 아마 十月初旬頃 開催될것이다

鮮滿拓殖理事 軍部서一名推薦?

鮮滿拓殖會社의 理事는 其後 二宮中將等의 關係諸問에서 人選中이든바 內定된 人員中에도 相當한 異動이 잇슬模樣이다 即 滿拓을代表하야 入社하기로 되어잇든 向防盛一郎氏는 病으로 其補充은 滿鮮拓殖社員中에서 推薦하기로되고 도 理事에 物議되어잇는 東拓代表의 渡邊得司郎氏는 監事로되며 理事一名은 軍部에서 推薦하게될 模樣이다

諾、丁、芬各國 不干涉案을支持

【코펜하ー겐二十日發同盟】西班牙內亂을 앞두고 諾威、丁抹、芬蘭各國外相은 코펜하ー겐에서 會合하야 對策을 協議하엿는데 二十日에 至하야 全員一致 佛國政府의 不干涉案을 支持하기로 決定하엿다

大藏省內에 金融課新設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 馬場藏相의 金融統制方針에 則하야 銀行局內에 特別金融課를 新設하고 金融統制計畫全般의 調查와 最近新設된 鮮滿拓殖會社 拓殖等 外地會社의 金融及 紙幣有價證券類似의 金融을 管掌하는 會社의 監督等 他課에 屬지아니한 業務를 執務하기로되어 이에 要하는 經費를 明年度豫算에 要求하기로되엇다

寺內、小川兩相 原料國策을協議

【東京電話同盟】寺內陸相은 小川商相과 二十一日의 閣議散會後 首相官邸에 殘留하야 原料國策 特히 人造纖維問題에 關하야 協議하엿다

川越大使從遡의 北中開發原則

國府態度如何極注目

【北平二十日發同盟】川越大使가 宋哲元氏等冀察政權首腦者에게 從遡한 北中開發의 原則 即「北中政權者는 獨自의 立場에서 自由裁量하여야할것이며 要는 이를 承認하도록 國民政府에 勸說하라」는 日本方針을 傳하고 冀察政府側도 完全히 實意를 表하야 國民政府가 右方針을 承認하는데잇서서는「곳北中經濟開發具體化에 着手할 意向을 가젓다 다만 國民政府가 果然右方針에 따를는지 그與否의 態度表明은 다음의 蔣介石、川越大使의 會見까지 延期될터인데 川越大使는 如左한 理由에 依하야 當然 容認되어야할것이라고 한다

一、北中問題處理는 日滿中三國關係의 全面的調整의 出發點으로 極히 重大性을 가진것이니 北中의 特殊的存在를 無視하고 處事를 그릇하면 日滿中三國에 對하야 不利한結果를 招來할 念慮가 잇스므로 此際에 힘써協議할이必要하다

一、北中經濟開發은 中央이 이를 容認하는 立場을 取하면 實的으로 北中分離의 傾向을 버리고 또 中央의 體面과 威信도 保持하고

一、이에 依하야 中央의 北中經濟開發도 可能하게되어 北中의 經濟的 一體化를 期할것이다

一、右는 中央의 主權을 侵害하는것이 아니므로 國民政府에서 오히려 이것의 實現助成에 努力하여야될것이다

第二次四相會議에서 重要國策에關해 四相間에意見一致

【東京電話同盟】第二次四相會議는 二十一日午前十時十分 首相官邸에서 開會하고 廣田首相、馬場藏相、寺內陸相、永野海相이 參集하야 爲先 馬場藏相이 前回의 四相會議後 各省大臣及 廣田首相과 協議한結果 大體腹案을 어든國策項目을 說明하고 諒解를求한데 對하야 寺內陸相이 拓務省으로부터 提出한 滿洲移民은 國策으로決定實施할必要가잇다는旨를 力說한다음 永野海相은 燃料國策 海運國策 電力國策은 꼭 實現시키고십다 燃料電力은 國策으로 採用되엇스나 海運도 國策으로 採用하여야할것이다 라고 熱心히 力說하니 廣田首相、馬場藏相도 兩相의主張에 共鳴하얏다 다음寺內陸相이 首相藏相은 國策決定을 爲하야 苦心하고 잇는것은 諒解하나 現內閣은 庶政革新斷行을 聲明하얏스므로 速히 國策을 決定하야 이實現에 邁進하여야할것이다 라고 國策決定을 督促하고 永野海相으로부터도 同樣의 意見이 잇서서 協議를 거듭한結果 國策에 關해서는 四相間에 全혀 意見이 一致되엇스므로 四相會議結果에 基하야 馬場藏相은 關係各省大臣間에 折衝을 거듭하기로하고 國防費問題에 關해서는 意見을 交換한 後 廣田首相馬場藏相이 財政의 現狀을 說明한다음 速히 國策을 決定하야 이實現을 圖하고십흐나 이에 對해서는 財政實情에 鑑하야 陸海兩相은 充分協力하야 國策遂行과 豫算案의 圓滿成立에 盡力해주기바란다 라고 陸海兩相의 協力을 求하고 同十一時二十分 散會하엿다

寺內陸相談

今日의 四相會議內容에 關해서는 말할수업스나 國策에 關해서는 圓滿히 進行되어 四相間에 意見이 一致되엇스므로 다시 四相會議를 開할 必要는업슬줄안다

永野海相談

【東京電話同盟】永野海相은 四相會議散會後 如左히말하엿다 國防費와 財政問題에 關한 協議與否와 그內容에 關해서는 말할수업다 今日은 輪廓을이약이햇는데 今後도 繼續開催하게될것이다 重要諸國策에 對해서는 말하지안켓스나 海軍은 燃料國策、海運國策이 此際에 急施되지안호면 안된다고 確信하고잇스므로 此等國策實行을 要望하는것은 勿論이다 問題의 電力國策에 對해서는 지금 意見을 말할수업스나 現制度下에서 利益을 엇는者가 反對하는것은 當然하다 廣田內閣은 庶政一新을 聲明하지 안앗던가

蘇聯、바市에서 無電宣傳指導

【伯林二十日發同盟】바르셀로나市로부터 伯林에 達한 報道에 依하면 蘇聯政府는 바르셀로나無電放送所에 技術者를 派遣하고 重要 人民戰線派의 宣傳을 指導中인데 十九日에는 同放送所는 公然 反파쇼放送을 하엿다고한다

藏相、首相과協議

【東京電話同盟】馬場藏相은 二十一日의 閣議에 앞서 午前八時四十分 官邸에 廣田首相을 訪問하고 前日의 閣議에 繼續하야 國策과 國防費에 對한 藏相의 方針을 說明하여서 四相會議에 臨하엿다

八面鋒

◇太平洋會議에 出席한 各國代表들이 「세계平和」를 말하는 式―

◇日本代表 高石眞五郎氏曰 「日貨의 低廉은 決코 「쏘시알덤핑」이 아니다. 이것은 日本의 產業의 特質에 依한 것이다」

◇又曰, 「日蘇兩國間에 解決할수 업는 政策上衝突은 업다. 따라서 戰爭은 必至가 아니다」

◇其他 米國、濠洲等等의 代表들도 各樣各色의 獨白을 웨치는것도 可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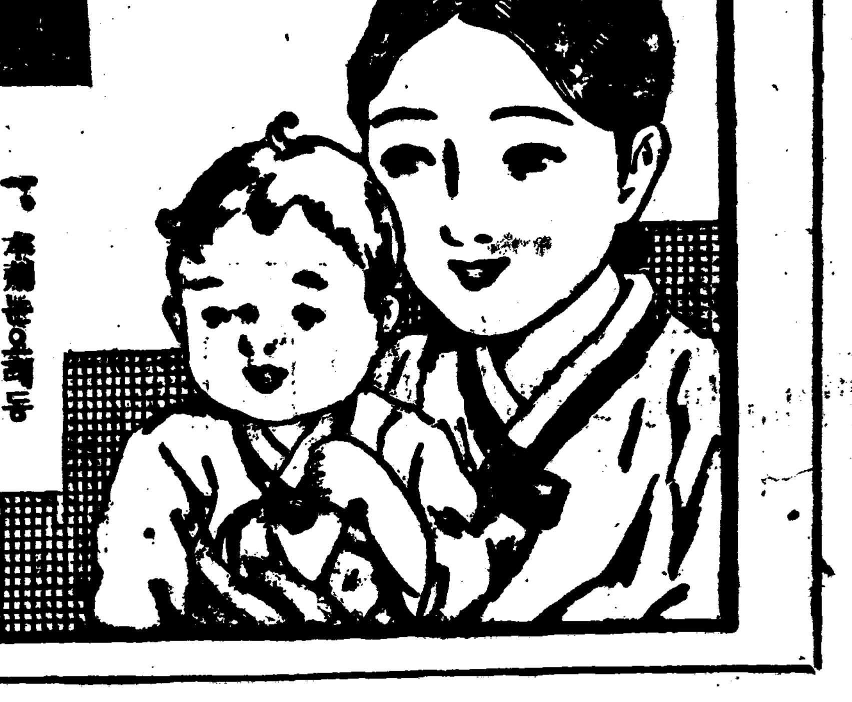
◇聽衆諸君, 그만하면 이舞臺의 光景이 어떠한것을 짐작하지안소.

◇但, 戰爭은 아니난다하니 爲先安心하여둘가요.

泄瀉腹痛 腸胃疾患에

泄瀉、腹痛、腸胃加答兒의 速治良藥

健胃固腸丸



服用하기 쉽고便利한 健胃固腸錠

泄瀉腹痛에 一回三錠

腸胃衰弱에 一回一錠

錠劑의藥價改定

價格半減에相當한 內容增量을斷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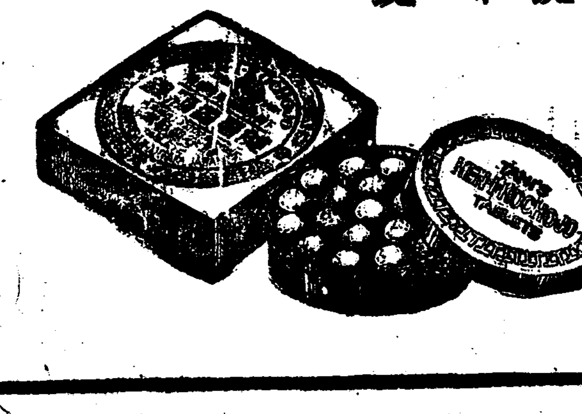
新藥價

金三十錢(舊十二錠入)은二十一錠入

金五十錢(舊二十一錠入)은四十八錠入

金一圓(舊四十八錠入)은百二十錠入

金五圓(舊二百錠入)은五百錠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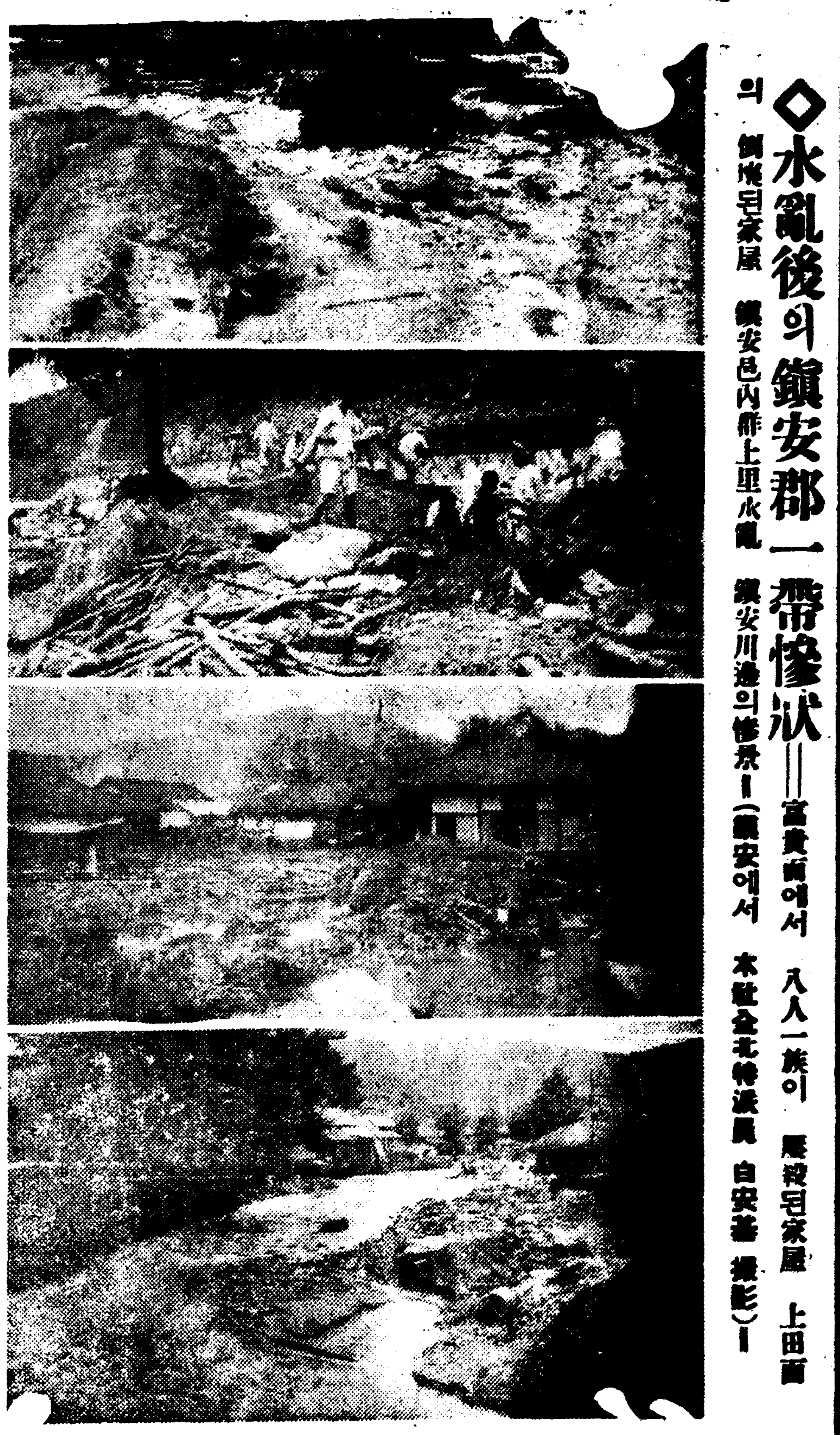
同春堂

藥價 二十錢 卅錢 五十錢 一圓 二圓 三圓 五圓 十圓

小兒에게는專門의 小兒固腸丸이有함

本劑는오래동안實驗과多大한信用에依하야 胃腸藥으로서 瀉痢腹痛胃腸病에代表的名藥입니다

더욱本劑는좋음으로 팔리기때문에 類似品이만히 엿사오니 사실때에 반드시 同春堂製라고 指名하야주시오



◇水亂後의 鎭安郡一帶慘狀―富貴面에서 八人一族이 壓殺된家屋 上田面의 倒壞된家屋 鎭安邑內群上里水亂 鎭安川邊의慘狀―(鎭安에서 本社全北特派員 白安善 撮影)―

水亂겪은鎭安郡 判明된死亡者(廿日現在)

【鎭安에서 全北特派員白安善發信】鎭安郡鎭安面群上里九三 宋在三(六三) 同同人妻李姓女(五三) 同二女末南(一〇) 同三男永德(一三) 同四男貴宋(三) ▲鎭安郡鎭安面群上里八五〇 崔龍德(一三) 同 同人妻李姓女(三〇) 同長男顯東(一三) 同二男顯宗(一三) 同長女順德(一) ▲鎭安郡鎭安面[illegible]里 吳貴岩(一三) 同 同人妻 黃姓女(三〇) 同二男成西(六) 同二女定午(一三) 同吳成德(三) 同吳成彦四女 玉珠(一) 同金姓女(七) ▲鎭安郡富貴面巨石里四四九 吳姓女(六) 同劉今岩(六) 同 同人長男金吉石(一〇) 同長女順德(七) ▲鎭安郡富貴面[illegible]里四四一 宋基萬(六〇) 同井谷里[illegible](一三) 同[illegible]基乃(一) 同新亭里五七三 李克基(一) 同井谷里三七五白孝奎(一三) 同二男白孝彦(六) 白順德(六) 白保南(一) 同新亭里[illegible](一) 同巨石里劉今石(一) 同巨石里四四九 劉[illegible](一) ▲同井谷里七七一 金姓女(六七) ▲同巨石里四四九 劉京甲(一) 同孝順伊(七) ▲同新亭里五〇一 朴姓女(一) 同孫甲順(一三) 同孝貴良(一) 同李永喆(一) 同長女永愛(一) 二女末愛(一) ▲同新亭里二六 李姓女(一三) 同二男永根(一) ▲同[illegible]里 崔[illegible]女(一) 同長男[illegible]天(一) 同二男[illegible] 點禮(七) ▲同上田面月坪里九九二 [illegible](一三) 同[illegible](一) 同[illegible](一) ▲同[illegible]里八三 李[illegible](一) 同三男完根(八) 同[illegible]秀天(一) ▲同[illegible]里九〇二 朴[illegible] 同[illegible](一) 同長男仁生(一) 同長女[illegible](一) 同妻 愼姓女(一) 同林姓女(一) 同朴[illegible]男(一) 同朴[illegible](一) 同朴 吉男(六) 同[illegible] 丁[illegible](一) 同長男 天[illegible](七) 同金[illegible](一)

경에 달지 대내강(大寧江)하류 에서 목욕하다가 빠저죽엇다는 데 원인은생활난으로 강변 사 금강을하던중 당일로 대령강변 에서 채금을하다가 정신을 지 낸뒤 더우를 못이여 갑작이 에워여름이 군유마비가되어 즉 운것이라고 한다

共產軍의跋扈로 憂慮되는移住同胞

爆擊機의猛襲에도頑强對抗 戰時狀態의撫松縣

【咸興】귀보=공산군이천여명이 무송현성(撫松縣城)을포위공격하야관동군측에서비행기까지를동하야 격전중에잇다함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 공산군의 형세는아직까지 매우 우세로서 폭격기(爆擊機)의 무시로떨구는 폭탄에도 조금도 굴강할기세를 뵈지안코 더욱 맹렬히 공격을계속하고잇다한다。 그리고 이격전에랑군측의 전사상자는 아직상세히 알수업스나 폭탄과 총탄등으로인하야주민이 죽은것이 이십여명 부상자사십삼명 합계심구명의 사상자를 내이엿다고하며 자경단원(自警團員)도 세명이 전사하엿다고하다 방금 동지부근일대는 일대전시상태를 이루워 주민들은 갈팡질팡 갈데를 못찻고해매이고잇는중이라고한다 동지부근일대는 이주동포도 극히다수히 살고잇는데 그안위가 매우 우려되고잇는중이다

就業햇든七百職工 今朝、또다시罷業

監督을解雇안시킨工場側處置에憤慨 空氣極度로險惡化

郡是製絲工場罷業續報

【大田支局電話】귀보=동맹파업한지 제사일만에 대전군시제사공장(郡是製絲工場) 약팔할의 직공은 이십일아침부터 일제히 취업한것은 작지에 보도햇거니와 금이십일일 오전여덜시반부터 남녀직공 칠백여명이 또다시 파업을 단행하고잇다 그리유는 지난 십부일에 녀자직공여섯사람을 란다하야 중태에 빠지게한 가해자 측 직조부감독 삼기(杉崎)와 차석(次席) 김모와 조모등 삼명을 해고식혀달라는 요구에대하야 공장측에서는 겨우 김모만을 해고 (작지의 삼기감독해고는 오보) 식혓고 아직도 삼기감독과 조모는 그대로남어잇기때문이라한다 애초에는 공장측에서 감독 삼기외 두명을 해고식히겟다고하엿슴으로 일제히 취업햇섯는데 공장측에서는 식언을하고 그중 겨우 김모한사람만 해고식혓슴으로 모다 분개한것이라한다 그런데 직공측에서 다시 동맹파업을 단행하니 공장측에서 만일 그러케 할터이면 차라리 모다 공장으로부터 나가달라함으로남녀직공들은 봇다리를 싸가지고 나가라할때에 공장측은 다시 문을 굿게다치고서 외부와의 련락을 일체 끈허버렷다한다 그래서 마치 감금상태에잇는 칠백여명직공들은 장차 어떠한태도를 취할지 알수업서서 그형세는 자못험악하여젓다

人生"倦怠"의"縮圖"

가을바람에노러난女子 鍾路署에搜索一日願五件

이마에서 흘러떠러지는 땀방울을 이 『페-부멘트』우에 점선(點線)을 그리고 옹거놋든 밟길이 어느듯 선풍긔(扇風器)를차저 사람들은 허덕이고 만물은녹아는듯든 삼복염서(三伏炎暑)도 서쪽에서 부러오는바람소리와함께 사라저버리자 세상에는 청신(淸新)한 기운이 가득차지며 사람들은 이젓든정열(情熱)과 감상(感傷)에 다시잠겨지는 이때 이십일시내각서에는 아래와가튼 형형색색의 수색원이들어와다

▲평양부신창리(新倉里)구십팔번지한식자(韓寶子)는 절세미기(美妓)인그의동생정숙(正淑)(二〇)이가 김형식(金炯植)(三〇)이란자와련애의도피행(逃避行)으로 경성방면에 온듯하다고 차저달라는것이다

▲충북청주읍수정(淸州邑壽町)이십이번지 서병두(徐丙斗)는최부순(崔富順)(二〇)이란 조강지처가 충북옥천군 청성면 산계리(沃川郡靑城面山桂里)전서원(全書元)이란자와 장변의 여흥(餘興)에 눈이어두어 남몰래 드듸여 지난십일일 경성방면으로도망질하야왓스니차저달라는애원!

▲시내 사직정(社稷町)이백사십팔번지 리간난(李干蘭)(二〇)은 얼마전에 싸우고 집을 나가버린 그의남편 왕한욱(王漢旭)(三一)을 구해준 가을바람과함께 도라오도록 하여달라고 눈물을 흘려가며 고대하고잇다고한다

▲함남 흥남읍천기리(興南邑天機里)염두찬(廉斗讚)의 맛딸귀인녀(貴仁女)(二〇)란 이팔처녀가 얼마전에 집을나가 경성방면에 도주한듯하니 차저주시요 하는 부성애(父性愛)의 수색원!

▲마지막으로 간부(姦夫)와눈이마저 저금하엿든 대금까지차저가지고 도망한 첩을차저달라는 사나히가잇다 그는 충남 서천군서천면삼산리(舒川郡舒川面三山里)삼백칠번지에서 음식점을 하고잇는 박룡근(朴龍根)으로 전과장 소에서 영업을하고잇든 그의첩 고성녀(高姓女)(三一)가 어느사이에 그근처

齋洞町을兩次襲擊 靑年六名을檢擧

西大門署員俄然緊張

세칭적우사(赤友社)사건 조선혁명당 조선내 공작위원장(朝鮮革命黨朝鮮內工作委員長)류광호(柳光浩)(三七)이하 여섯명을송국한그이튼날인 이십일 시내서대문서에서는 또다시 모방면의정보를밧고 리(李)부장이 인솔한 형사대가 오전열시와 오후다섯시로전후 두번이나 서내재동정(齋洞町)이십일번지 홍창식(洪昌植)의집을 습격하고 여섯명의로동자비슷한 청년들을체포하여왓다 이들여섯명은 대개가 도로공사에 종사하고잇는 일반로동자라고하며 그중유력한용의자세명은 전라도(全羅道)와경상도(慶尙道) 사투리를 쓰고잇서삼남지방에서온듯하며수괴로인정되는동모(董某)는약일년전부터 경성에 잠입하고잇섯는데사건의내용은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려든 혐의라고하며 검거는아직도 계속될모양이다

大田郡是製絲職工 罷業한原因과經路

【酷甚한待遇에機械以上의勞働强要】

(完) 本社大田特派員 申 哲 手記

重傷한女工을 吾不關焉態度

금번총파업의 원인이된 감독에게마저 중태에빠진녀공과 기게에주상을당한 녀공들은 방금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그중김남순(金南順)은 몹시중상을 당하야 헛소리를하며 말을무러도횡설수설하야 무슨소리인지 료령부득의 상태에이르러 잇다고한다 자기들공장에서 다치지안코 자기들 사람에게마즌것이 아니라고하드라도 서로알만한 처지이면 한두번쯤방문하야도 그리 잘못은 아닐것이다 더구나 자기들공장에서 일을하다가 기게에 중상을입은자와 흉포한감독에게 무고히란다를당하야 입원치료중인 그들을 공장측에서는 한번와서 병상을 무러보는일까지업섯다고하니 이것이 공장당국자로서 능히 취할태도일가? 전회에도 말하얏거니와 이것역시 그들이직공을 인간으로 취급하지안는 무자비한 행동까지 취하게되는것이다

隱居식힌暴漢 機會보와逃亡

녀공들에게 욕하기를 유일한무기인줄알든 감독과 그의졸복김모등은 여공들에게 전회보도와가튼 야수적폭행을 감행하얏슴에도화선(導火線)이되야 이번의 파업을 일으키게하얏다 그럼으로 여공들은 전부결속하야 그들에게 보복을하라고 폭한을차저다니다가 시장파출소(市場派出所)까지달려가 아우성을치며비명을 울리는정경은 보는사람으로하야끔 동정의눈물을 금치못하게하얏다 그러나 경관들의제재로 다시공장으로 몰려드러갓다 감독삼기(杉崎)는 어느곳으로인지 도망하고말엇고 김모라는자는 빠저나갈길이업서 공장집웅우에 올라가 맛치원숭이와가티 피해돌아댕기는것을보고분로의 랭소를하지안흔 사람이엄섯다 밤까지집웅우에 숨어잇다가 여공들의눈을피하야 공장을 탈출하야 원험을면하얏다는 웃지아니치못할 사실도잇다

署長調定不應 監督解雇要求

지난십구일에는 일이너무 지연되여감으로 사태가 점점 험악하게됨으로 대전경찰서(大田警察署)장 고원(高原)씨가 즉접조정에 진출하야 공장편에서도 충분량보하라고 권고한후여공전부를모아노코 모든일을 잘처리하야줄터이니직장으로 드러가일을하라고 권하얏스나 로긔충천한여공들은 서장의조정에도 응하지안코 감독삼기(杉崎)와김모(金某) 조모(趙某)는사이엄해고식혀주지안으면 절대로 취업할수업다고 강경한태도로 거부하야 문제는갈수록 암초에빠지고잇다 여공들이 전기삼명의해고로서 취업한다는것은 타당한 리유임에불구하고 공장측에서는 무슨까닭에 그요구를 드러주지 안는지 심리상태를 알수업다하야 일반은 이것을 말하지 안는사람이 업다고한다。

憤怒한職工들 徹夜하며抗爭

공장측에서 너무 태도가 애매하고 원만해결에 성의가 업슴에 분개한 직공들은 분을 참지못하야 밤에 잠도 자지못하고 경관의 감시미테서 방방이 모혀안저 아모 이야기도하지안코 침울한 그대로 점점 길어가는 요새밤을 그대로 새엿다고하며 울분이 치켜오를때마다 아우성을처 부근사람들의 깁히든잠을 깨여놋는때도잇서 외부에서는 별별유언비어가 돌아다닌다는데 내부의 자세한 소식을 모르는 직공들의 부모형제들의 마음을 조이게하얏다 그리하야 직공들의 가족들은 공장을 고만두든한이 잇드라도 그들의 귀여운 딸을 데려갈라고하나 출입이 엄금되야잇서 데려갈도리까지 업다고한다。(完)

◇本社救護班의 活動―密陽郡儉世堤防에서 罹災民에게 白米를配給 密陽驛에서 白米를輸送(密陽에서本社特派員嚴尙燮撮影)

沐浴하다溺死

【靑山】창성군청산면 용전동(昌城郡靑山面龍田洞)에 사는 강문백(康文伯)씨의 외아들 지원(志元)(一七)은 지난 십칠일오후한시

두왕리(斗旺里)에사는 김만길(金萬吉)(一三)과 눈이마저 고성녀는 도피행려비로서 칠백이원의 예금까지 훔처가지고 지난 삼월 아십이일 내빼버린것을 각방면으로 찾다못해 경찰에 애소한 금주과 정욕이중주의 수색원이 잇섯다

四道에鑛山係特設

監督과技術的指導

每年二三道씩將來實現할方針

총독부광산과에서는 명년도에 평남북 함남 충남북도의 산업과에 광산계를 특설하고 이에기사한명과 기수수명식을 배치하게되야 예산에 요구하엿다한다 이것은 종래의 계획이든 광산 감독국의 설치를 중지하고그대신 중요도에 광산계를둔을배치하야 광산의 감독과기술적지도를 하려는것이다 따라서 금후매년이삼도식광산계의특설을도모하야 장차 각도에 전부설치할방침이라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광산현장시찰과 조사등은 도의 기술원을 총하야 신속히하게될터임으로 광산출원자의처분을 신속히할수잇게된다한다

실림 신기하게든치되는 림질내복약 オネゴノルヂン 東京 三円 六円 京城南大門通一丁目 大同藥業社

一胎에三男妹!

一男二女順產、健康

【朱安支局電話】이십일일오전여덜시에경인선(京仁線)주안(朱安)역압 구월리(九月里)사는 장원식(張元植)씨의안해 조씨(曹氏)라는 마흔살된 녀자는 한꺼번에 게집아이둘과 사나이 하나를 생산하엿다 산모나 유아나 다건강하다 이근처사람들은 보기드문 일이라하야 구경꾼이끄리를물고 모혀들고잇다

衝車와自動車衝突

이십일일 새벽세시경 트상점(새上町) 일테사십팔번지의사 리재호(李在浩)(三六)가 구루마를 끌고 종로(鍾路)방면으로 가다가 피곤한 닷이엿든지 구루마우에서 조을다가명치정(明治町)드러가는데 잇는안전지대에서 자동차와 부닷치여서 크게파손되엿다한다

運動競技

崇商籠球部 奉天서는三勝

【奉天】本社各地支局後援아래北鮮과 滿洲一帶를 遠征中이든 平壤崇仁商業學校籠球遠征團一行十二名은 金忠善氏 引率下에 十七日朝 來奉하야 連二日在奉軍팀과게임을 行하엿는바 同團의技術은 相對되는팀들로하여금 敵軍全部를 破竹의勢로征服하야 快勝하엿다는바 相對팀들은모다 奉天에서의 最强팀이여合으로 崇商軍의實力을 더욱 빗나게하엿다 그리고 十八日저녁에는 在奉父兄諸氏의 招待로 歡迎晚餐會까지잇슨후 下午九時四十分發車로 다음戰地인 大連으로向하엿다는데 奉天戰績은아래와갓다한다

全崇商 42	(19–13) (23–12)	25	滿人聯合軍
崇商 89	(60–16) (29–12)	28	商科中學
全崇商 90	(52–15) (38–4)	19	鐵路局軍

平實8 平鐵6

【平壤】京日主催全朝鮮野球大會西朝鮮豫選은 十九日午後四時七分부터 公設球場에서 早瀨(球) 松井、西米津(壘)三氏審判下에 平實先攻으로 開戰하여 八對六으로 平實快勝하야 西朝鮮代表로 京城에 出戰케되엿다

天氣予報

概況 颱風은 琉球列島로부터 멀리떠러저잇는 南海上을 西쪽으로 進行中인데 大端한 影響은업다 低氣壓은 日本海中部에 七五四미리 滿洲에 七五二미리의 것이잇서 東進하고잇다 九州에는 弱한副低氣壓이잇스며 朝鮮海峽에는 不連續線이잇다 滿洲는 맑으며 朝鮮은 호리고잇는데 西岸中部는 맑고 南東岸은 비가오고잇다 日本內地도 호리고잇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개엿다 호렷다하며 明日도갯다 京畿道全區도 개엿다 호렷다한다

昨日最高	二四度
同 最低	一九度六
今朝最低	一九度
今日正午	二五度九

돈벌기大王 リード式製粉膨脹機 五合의쌀이八升가되는米菓子機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九八番) 特許法許可製

懸賞付尋人 內地人 容貌 服裝 年齡五十八歲假量 身長五尺三寸瘦形 多少面長 [illegible] 上衣(네임人) [illegible] 八月十四日午後二時 [illegible] 本社 [illegible]

恩給 朴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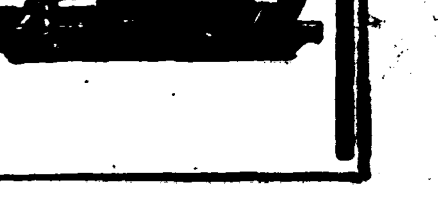
朝報案內

好職業 不景氣의大敗는업다 [illegible]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山羊 明本山羊牧場 京城東小門外

藥 御問屋 營業案內中越進呈 株式会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電本 四〇九・一〇六八 四〇九・三四四八 振替京城一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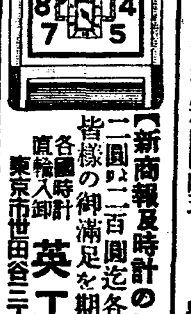
クボタの…… ディーゼル機関 石油發動機 日英米獨佛伊 特許アータ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産品 (文獻進呈) 鐘紡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 06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幹部社員招聘 地方主任 監督所長 若干名採用 生命保險外交趣味有者、交際廣面手腕家經驗不問 履歷書、身元證明 各壹通郵送詮衡後面會日通知、俸給其他月收百五十圓以上確實(但面會謝絶) 京城府花園町四五 星旭堂

【新商報及時計の知識申込順急送】 二圓以上二百圓迄各種取揃 値段共に皆樣の御滿足を期待!(大特賣中) 各國時計直輸入御 英工舍時計店 東京市世田谷三丁目・電世三三〇三番



◇校舍大擴張◇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日◇學則要二錢切手 第四七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 (電本五三三〇番)(期後)

◎新學期開始九月十日(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學校入學又八編入學受驗準備 生徒募集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 電本五三三〇番

淋疾 蔘茸五淋錠 淋疾은體質과副感染菌을따라各各다릅니다 腺淋、血淋、肉淋、砂淋、骨淋을五淋이라하며甲藥이乙에는無效하고乙藥이甲丙에는不適한事實은말할必要도업습니다本劑는人蔘鹿茸多數漢藥에强力殺菌劑의高貴洋藥을配合하여 니다、엇더한體質과淋型을勿論하고偉效的强力을가진本劑를試用하시요(無代說明書進呈) 定價 一圓 三圓七十錢 全國有名藥店에無함時는本舖에照會하시면 咸興府大和町三丁目 朝鮮靈藥研究所 振替京城一三四六番

ランランポンマー 란란 폰마 모도가고움다 편관 란란

씩々한健康
넘치는凉味

지금부터絶對必要한救急護身藥

은銀 입粒 인仁 단丹

胃腸 鈍해지기쉬운夏節의胃腸運動을促進調整하는데는仁丹의常用이第一이다。特히아름답고輕便한容器香味의爽凉함과夏季萬人의嗜好에適合하야仁丹獨特한것

頭痛 盛夏의밤에는熟眠이어려움과寢冷키쉬움은感氣、頭痛이된다。頭痛을견듸고지내면炎天下와酷暑의刺戟을밧아서眩暈이생긴다。仁丹은이런症狀에 가장特殊한藥効를發揮하야沈靜하기에힘쓰다

呼吸器 바람과砂塵에咽喉를傷하고、口渴과呼吸의困難을느끼는때에야말로仁丹은꼭必要！仁丹은늘口中의爽凉感과함께口渴을醫하며獨特한殺菌力을發揮한다

疲勞 睡眠不足의頭痛、더위의疲勞倦怠等모다非精力的境遇에仁丹의服用은곳元氣를回復하야活動力을顯著히하고机邊에안저서나街頭나일할제나能率은倍加한다

夏瘦 睡眠不足、胃腸障害食慾減退等으로由來하는夏瘦는諸病이노리고잇는夏季健康의危機仁丹은貴重藥의特殊藥効로써完全히夏瘦를擊退하야이危機를解消한다

惡疫 惡疫이猖獗하는때、衛生施設의不備를補足하야防疫的으로各自의健康을守護하는것은仁丹이다。特히生水를먹은後等에는반드시仁丹을服用하야禍를未然에막는것이最大急務、

口中惡臭날때 입에서 惡臭나는것처럼不快한것은 업다 仁丹數粒을입에너흐면、[illegible]이爽快

訪問接客할때 남을尋訪하거나、또는尋訪을밧앗을적에 仁丹의 嗜好는저편에 好感을주게된다

疲勞倦怠할때 元氣를 蘇生하고 活動力을높히는데는 仁丹이가장速하고잘듯는다

執務勉學할때 頭腦의明晰、記憶力의增進、特히猛暑에對한耐力을增長하는仁丹!

音聲使用할때 聲量을노피면、咽喉를潤滑하야口渴을防止하는仁丹速効

惡疫流行할때 지금이야말로、惡疫을가장警戒해야한다 仁丹은護身防疫하는약이다。

船車旅行할때 汽車멀미에速効가잇는仁丹은特히夏節旅行에는暫時도놀수가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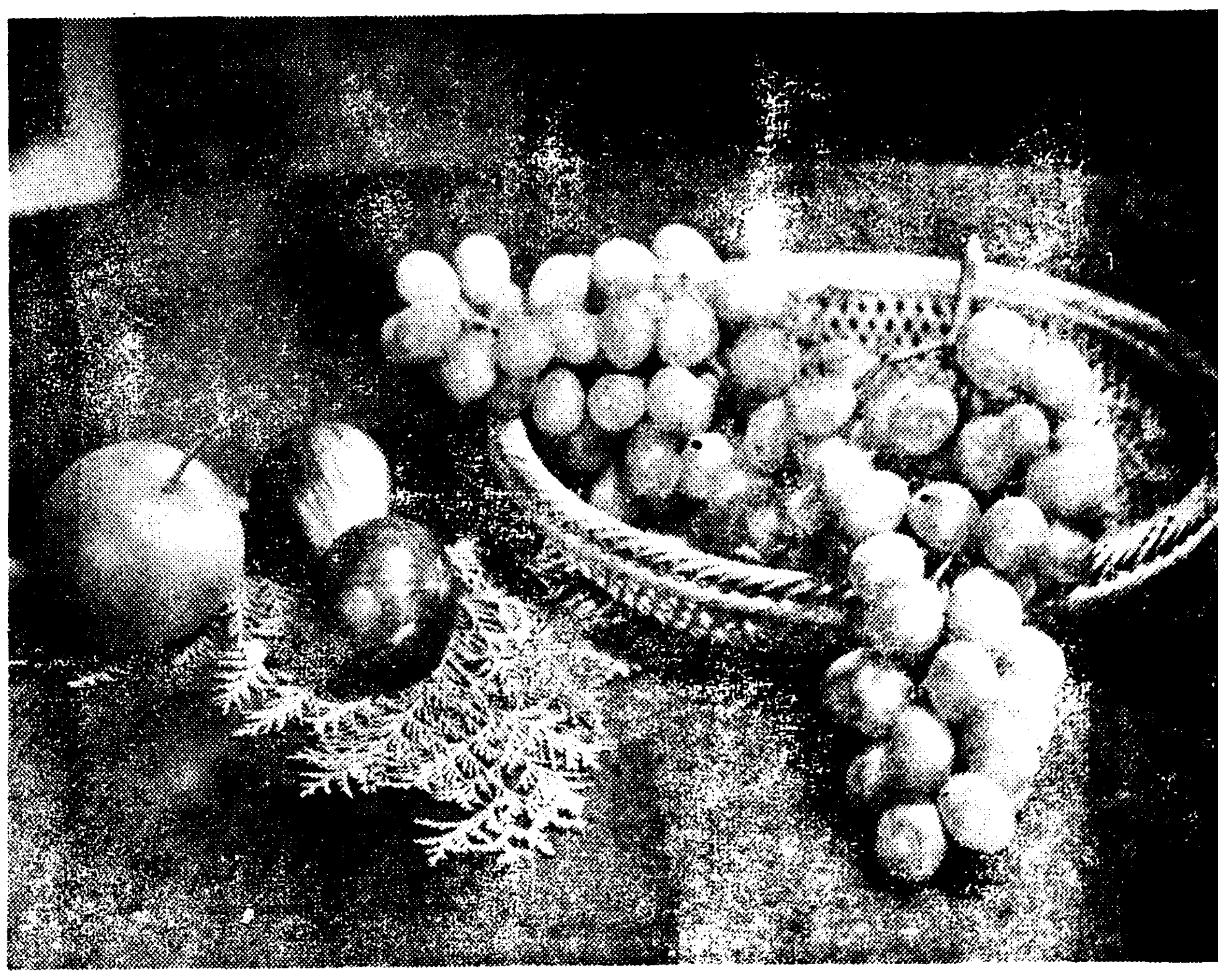
運動散步할때 仁丹數粒을입에물고運動하는맛은또한快活、하물며散步할때에는

飮酒喫煙할때 니코친을緩和하고惡醉、宿醉의[illegible]푸는때는仁丹이가장適切有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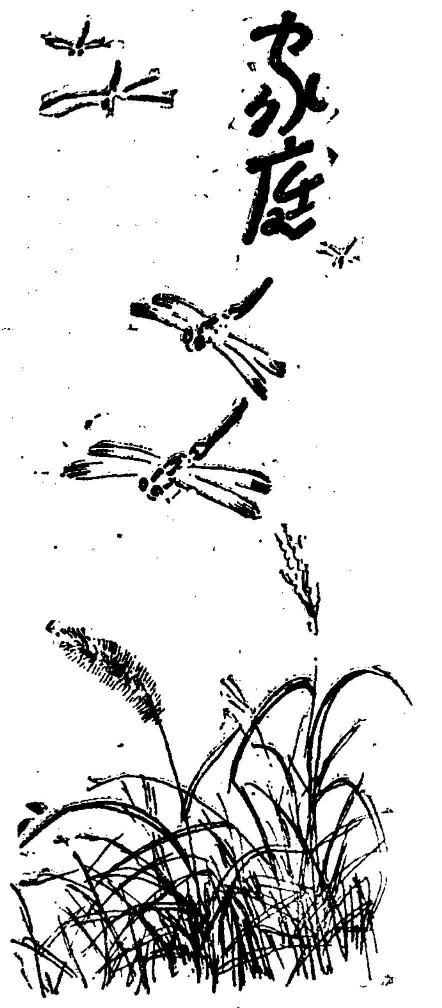
銀粒仁丹藥價

御試用分(百五十粒)十錢
富士容器附(三百二十粒)二十錢
滿洲容器附(四百粒)三十錢
家庭容器瓶入(五百粒)五十錢
御徳用分(一千粒)五十錢
御徳用瓶入(三千二百粒)一圓

大阪・森下博營業所



—○○○○— 기절의 매력 —○○○○—



인물이 곱드래도 못우슬, 뻐드렁니

습관성과 유전성의 두 원인

마음만 구준히 먹으면… 교정될수 잇다

엇재서 뻐드렁니가될까 그원인은 여러가지겟지만 대체로 습관으로된것과유전(遺傳)되는것 두가지로 나누어볼수잇습니다

첫먼저는애들이 흔히 손가락을빠는버릇이잇다거나, 언제나고무젖꼭지를물고잇다거나 혓바닥을 입천장에대는 바못 아래입술을 무는버릇이 이러한버릇을가진아이들은 그버릇으로인하야 뻐드렁니가 되는것입니다

이러한버릇은 얼른보기에그다지큰 영향이 밋칠까싶지만은 이버릇이 습관이되면참 무섭게도 작용하야 위롭어되는 웃턱의 형상을 번케하고 따라서 뻐드렁니가 되는것임으로 이젓은 어머니되는 분이 평소에 어린애기를 늘주의해 살피시고 이런버릇을 교정 해야할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잘때 벼개의 위치가 잘못되엇다거나 코에병이 잇서서 코로숨을 못쉬고 입으로 숨쉬는때문에 볼따구니의 근육이 눌리어 웃혀의 형상이 변하야 이것으로 뻐드렁니의 원인이되는사람도잇습니다

이외에 유전으로 이러케되는사람도 잇는데 여하간이 뻐드렁니라는것은 시간의장단은잇다 할지라도 거이다교정 될수 잇는것 입니다.

엇재한 습관이 원인이 되엇것은 그버릇을 고치고나서 이를교정하면 훌륭히나을수잇는것입니다 그러나 두세살때에는 도저히 나을수업고 적어도 일년을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며구나 유전으로된 뻐드렁니는 그보다 더오랜시일이 걸려야 될것을 각오하지안허서는안됩니다

이 유전성의것은 별문제로하고 보통 습관으로 부터되는것은 얼른 그버릇이잇는것을 발견하고 그런습관을 업새면 어느정도까지 뻐드렁니의 예방이 될수잇는것이면 또 한가지 여기에서 어머니되는분들께 주의의말슴드릴것은 젓니(乳齒)에 대한 인식을 기피하시는것입니다. 젓니는 어차피 빠질것이라해서 아무러케나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엇재서 그러냐하면 이 젓니는 나종에 나오는 새니(永久齒)와 밀접한 관계가잇서서 젓니가 뻐드렁니라고할것가트면 그니틀의 형상이 납부기때문에 나종에 나는 새이도 역시 뻐드렁니가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뻐드렁니를 교정하려면 나이가 적을때일수록 효과가빠릅니다

더욱이 젓니와새이가 서로 바뀔때가되어 아래우혀이 귀질랴할때에 교정하면 가장효과가잇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뻐드렁니와 반대로 안으로 빠친옥니 노라는것도역시마찬가지로교정할필요가잇습니다.

엇재든 뻐드렁니라는것은 이의긔능으로 보드라도 무엇을씹는힘이 시원찬을것이고 또말소리에도 장애가되어 이세상에서 출세해 보랴는 남녀들에게 부자유한경우가 만흘것이니 아직나어린뻐드렁니 제군은 속히교정하시요!

幼[illegible]上의危機와그對策

애가기르는데 세고비가잇다

(上) 城大小兒科研究室 李聖鳳

제삼의위험기, 이시기는 일변 반이흔살부터 세살까지 제일만히 옵니다 이시기에는 어떤음식은 조화서 잘먹지만 어떤음식은실 허서 잘먹지안는 아이가만히생깁니다 죽고기만먹고 야채를안 먹는아이, 이와반대로 야채는잘먹으나 고기를먹지안는 아이가 잇습니다 죽이와가튼 편식아동으로인하야 가정에서는 두통되는 문제이며 편식으로하야그 아이의 발육이 불완전할것은물론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지므로 어떠한병에걸릴 위험성이 만습니다 그러면 편식아이를 어떠케해야 조흘가 또는 미연에 방지 할수잇슬까 그대책은 대단히 곤난하나 다음 세가지를 주의하야 항상노력하시면 대개 목적을 이루리라고밋습니다

가, 조화하지안는 음식이라도 료리방법이다르면 잘먹는때가잇습니다 죽게란을살마주던지 혹 쩌서주어서 그래도 먹지안흐면 밥이던지 죽에비벼서주면 잘먹는 아이가잇습니다 또고기, 야채에대한료리도 그방법을 달리하야주어야됩니다 또 콩으로도 얼마던지 료리를 달리할수잇지 안습니까 죽두부, 콩장, 콩밥기타여러가지로 맨들어주는것이 단이 필요합니다 이와가튼것을 귀치안케 생각하는분도 잇슬듯하나 이러케 고심한결과 그아이가 어떠한음식이던지 잘먹는다면 그아이자신은 물론 부모도 큰기쁨이아니겟습니까

나, 여러분도 경험하섯겟지만 아이의심리는 실로불가사의하게 생각되는때가만습니다 저거서는 안먹는음식이라도 동무집에가던지 또는사람이만흔데서음식을먹을때는 잘먹는 아이가잇습니다 그러므로 편식아이을루신부모는 각금야외에서던지 혹은 친치의 아이들과가티 만찬회를열어 실혀하는음식을 먹도록 차차습관을 시겨주는것도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에말한것과가티 늘노력해도 편식을 고칠수업는 경우에는 식료품을 살때 주의해야됩니다 례을들면 소고기, 제육은안먹어도 가튼동물성 단백질인 물고기는 잘먹는아이가잇습니다 이런아이는물론 물고기을자조주어야되며, 콩을안먹어도두부는 먹는아이가잇는데 이것은가튼영양분으로 맨든고로 영양상아무상관이업습니다 그외에 야채를 잘먹지안흐면 야채대신에과일을 주어야됩니다 이러케하면 아이의발육상 지장업시 잘생장하게됩니다 어떠한 식료품을살때는 한종류로하는것보담 때을따라 여러가지종류를사서 료리해주는것이 조습니다 지금말슴한 세가지만 주의하면 편식아이를 고칠수잇슬뿐더러 만일교정치못한다고해도 그아이의 발육에지장이 업슬것입니다

영양은 우리일생을통하야 늘 주의할것은 두말할것업지만 지금말슴한 세시기에는 각별히주의해서 죽어떤경우라도 정충중지하지안도록 만일중지할때는의사의지시을바드며 도전데기를그릇되지안케편식아동을 맨들지안케하는것이 부모 특히어머니의주의하여야 잇다고 보게될것입니다

—(쯧)—

리혼선수승천

리혼을하기로 세계제일의기록을 가지고잇든『쵹코솔로바캬』의『소피아·니-도비친』란는 만년신부는 요지음 륙십한살의 회갑(回甲)잔치를 지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렷답니다 리혼을 하고는 그냥 잇서서는 리혼기록을 가질수가 업습니다 리혼하거든 하룻밤비 결혼을하고 결혼을하거던 리혼할날자부터 속으로 정해노아야되는 이늙은 신부는 열아홉번째 결혼을 곡마단(曲馬團)에단이는 맹수사와 하고는 그만 리혼을 다시 못한채 스무번의 기록을 채우지 못하고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럿답니다.

황소를 무서워하는 곰

劉 一 千

한예날 깁흔산중에 곰한마리가 살어잇섯습니다.

곰은 마웃지가 떡고은즘생이엿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실것입니다 옛말삼에 곰과호랑이 싸호면 호랑이 이긴다지요 웨?

곰은 힘이 무척세지만 마웃지가떡고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곰보담 힘이 매우약한 즘생입니다 그러나마웃세가강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어느날이엇습니다.

곰은 떡 시장해서 먹을것을어드랴고 길을떠낫습니다.

곰은 하로종일 먹을것을어드랴고 어리저리 도라다니다가 우연히 강까에 이르럿습니다. 이때는마친 겨울이되여 북풍이 들어와 마른나무가지를 쌩쌩울리고 강물은 거울가티 반들반들하게 얼엇습니다 잇때엿습니다

강우구비를가처 웬 소모리군이 발구에다 낭구를만히실고 잿쪽잿쪽하면서 연송나려오는 것이엇습니다

강가에이른 곰은 이걸 보앗습니다 사람이나 이것을바라본 곰은『아저 어상될까? 잡아상될까? 황소나잡어먹엇을까?』하며 허롭들엇습니다

그리고 곰은낭구실은 황소모리군들이 어서어서 자귀아페 와주엇으면 조켓다하고 혼자속으로중얼거리며 궁뎅이를 들석들석어리엇습니다

어느듯 해는 몰롱이를 서쪽산넘어로 감주고잠자리로 들어가버렷습니다 잇때황소모리군들은 어서어서하며 낭구발귀를 어롬우에 벗트려넘기고 제각기황소를잇끌고 목노방으로 돌아가버렷습니다 궁뎅이를 쫑벗쫑벗하며 안저기다리든 곰은『날이어두어 아롬잘보이지안허 강구비를 거처나려오든 황소모리군들이 웨 나려오지 안는가?』

하면서 시장끼나는것을 못니겨 강우구비를 덤벅덤벅 걸어올려갓습니다

가서보니 어쩐일인지 어롬우에 낭구발귀만 와로히 남어잇섯습니다

어롬우에 외로히남겨잇는 낭구발귀를 본 곰은 그만부화김에 [illegible] 갓습니다

낭구실은 발귀를 들겟습니까?

예말삼에『수십척되는 노픈베레우에서 바위를 구울려도 곰은 능히 베레미러안저 두손으로굴려나려오는 바위를받어 돌려놋는다지요?』

곰은화김에 통낭구실은 발귀를 깨트리려고 달려들엇습니다

자! 어떠케습니까?

곰은달려들엇습니다 어진일인지 곰은죽을힘을 다하여 들녀고들녀고 애써도 들리지못하엿습니다

곰은 낭구발귀를 깨트리려고 달녀들엇지만 죽을힘을다하여도 끄덕내 들지못하고 마럿습니다

곰은홀로 부끄러워서 것둘쉽히 [illegible]며 밧검을붙너며 시장한배를 움켜잡고 자귀의집으로 돌아왓습니다

곰은 정말로힘이약해서 들지 못한것은아닙니다

이날밤 북풍이마른나무가지를 울니며 부러와 낭구실은발귀를 어롬우에따 얼어부처노앗든것입니다

『미련한곰은 이것은 아지못하고 덤빈까닭이엿습니다』

그후부터 곰은황소잡어 삼키기는고사하고 황소를보면 힘센즘생이라고 무서워서 벌벌떨게되엿습니다

잇든날아침 황소모리꾼은 여전히 어롬을깨트리고 재목발귀를 황소에게지어 줄줄끌고 가드랍니다。 (쯧)

나무에서사는게

게나가재는 물울끼고삽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세상은 넓고넓어 나무에서사는 게도잇스니 그일홈은『러버-크렙』。

第二學期

방학도다갓다! 챙길것은업는가

—어머니여 자녀를돌봐봅시요—

여름방학도 아프로 며칠 남지안헛습니다 두달가까운방학동안에 지금까지의습관을 버리고 학교분위기를 맛보지못한관게로 정신이나 신체가 모다 느러진것입니다 이런한 습관을 개학과에 가서 금작스러고치게되면 건강에도 조치못할것이며 공부에도 방해가만흘것입니다 그럼으로 학교에다니는 아들과딸을두는가정에서는 특별히 지금부터 류의하야 학교에다닐때와가튼 규칙잇는 습관을가지도록 주의하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여름방학동안 학교에서 내여주죽제가 위선다되엿는지 살펴보시지요 그리고 책가튼것은 잃어버린것이업습니까 랑바해서 찻느라고 펄펄매지마시고 지금부터차근차근 정돈해주는것이좃습니다 숙제가튼것을 잘해노흐야해둡은 어서상학날이 되기를 손꼽아기다리며、상학때 학교에가서선생에게 칭찬들을 생각하고 기분이 명랑해지며 상학것을부러 공부할마음이 생기게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한 어린이는 상학날이 갓가워올사록 우울해지며 학교에 가서도 상학 처음부터 선생님에게 꾸정을 듣는지 그러치안흐면 귀분이 상할때는 공부할마음이 나지안코、나가서는 선생의 꾸정을두려워하는 남어지 그만 꾀가나게되며 조회를 그르치게되며 타락의구렁에 떠러지는 놀나운 결과를 가저오기쉬운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되시는분은 늘 이러한것에류의하야 잘 지도하며 너무 무리를 하지안토록 하는것이좃습니다

좌우간여름방학이 다나고 새학기가 닥처오면 조흔습관을 그르칠수도잇고 못된습관을 교정할수도잇는 중대한과도기임으로 지금부터어린이의 귀잡가튼것과 건강을잘살펴 선도하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여름사리 간수

아무러케휘마라두지말고 잘 정리해야 안상한다

가을철이 되엿스니 여름동안 쓰든 물건을 모다잘정돈하야 치우기로합시다 떡과기름이 가득한것을버서서 그냥 치우면 오는해여름에는 못쓰게되는것입니다 옷이란 옷은 모다 잘빨래하여서 면칠동안 일광소독을 시킨뒤에 래년여름에내여 그냥입어도 될만큼 다리미질을하고 손질을하여서 좀 버레가먹지안도록 『나푸타린』을 너허서 치우도록 하지안호면 안될것입니다 양복이나 비단옷으로 빨래를 자조하면 해로운물건은 될수잇는대로 여름동안에 무슨군때가 튼것을 잘빤다음 모양이 잇그러젓거나 올이 다른곳이 잇거든 잘손질하야 바로 잡은뒤에 팽팽조이는 볏살에 너러말리여 고루고루 소독되기 전에 간수하도록 하지안호면 안됩니다. 그리고곡 '네프타린'가튼것은 벌레도할수 업는것이니 좀약조각을 넛고 휘발유로 떼를빼다음 마분지가튼것으로 『네프타린』도양을 며서 속에넛고 가볍게 다리미질을 하시던지 줘 가듯이 으로 놀러두엇다가 날러어 차근차근 개여서 「나프타린」과함께 간수하되 의장이 훌륭하면 문제도업지만은 그러치안커던 받듯한이층통 두가튼것에 모나게 접지말고 가볍게、접어서 너허두시는것도 좃습니다

니구멍에서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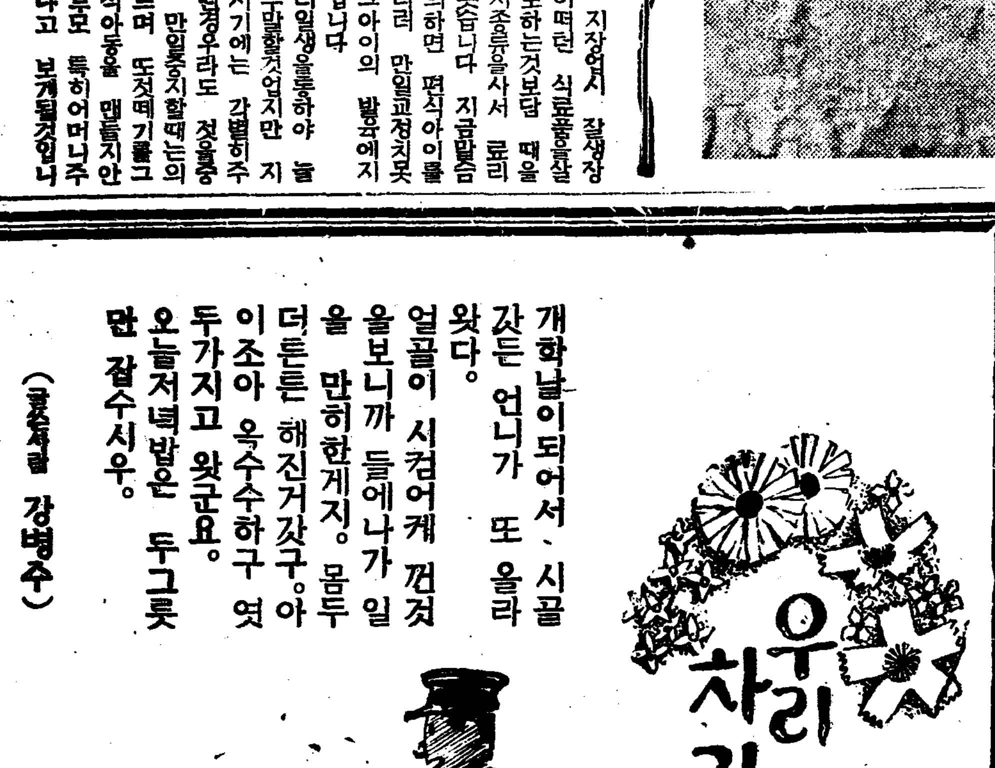
問 금년삼십일세된 남자이온대 약 십칠년전에 발틈아래 어금니 세개가 구멍이 뚤려저이서 너머저 상하야 두개가 부삼엽지료한후 그후에 자전거에 러진것을 그대로 두엇던니 지금은 그곳에 고름이 생기고 이가동합니다 부근치과에가서 문의하야보니 영원히 낫게할수업다하야 다시선생에게 못사오니 자서히 하교하야 주십시오 (華溪 애독자)

答 부러진데다 또한동(動)하고 거기다가 고름이 난다하니 아마완치할 희망이 업는듯하외다 그곳전문의사와 상의하야 될수잇는대로 속히발치(拔齒)하야 다른이에 전염이아니되도록 힘써보시요 (世醫專齒科 金蓓康)

회충에쓸약

問 이십륙세 남자인대 회충(蛔蟲)으로고통하오니 신체에무독하고 즉효잇는약을가르처주시기바랍니다 (龍川 黃)

答 회충약것가트면 구충약으로『산도닌』이라든가『마구닌』등은 토소-르등주사약으로 완전히치료될수잇습니다 그러나 회충이아닐것가트면 낫지못할것은무론입니다 당신이 문의하신말슴이 대변이나또는 금변을하여회충이확실합니까 그것을 먼저안후에 치료할거십니다 (醫專病院長 朴秉來)



개학날이되어서、시골갓든 언니가 또 올라왓다。 얼골이 시컴어케 껏것을보니까 들에나가 일을 만히한게지。몸두더튼튼 해진거갓구。아이조아 옥수수하구 엿두가지고 왓군요。 오늘저녁밥은 두그릇만 잡수시우。

(公州 강병주)

地肌의 榮養素

疲勞하지안코 健康美를 생기게하야魅力을냄니다

ウテナコールドクリーム (花印)

우테나코-르드크림

脂肪性 (三十錢)

ウテナ化粧料 本舖 久保政吉商店

11.8-32

日焼の御心配は無用です

벗꺼롬이 念慮가 · 업습니다

ウテナ雪印バニシンクリーム

太陽을쪼이고 海風을쏘여서

마음껏여름을 즐깁시다

그리고 浴後에는 바니싱크림을산뜻하게 바르면벗꺼롬도 땀거치름도 곳 解消!

살이히여지고 곱게된다!

白粉이잘먹고化粧이멀려지안는다

無脂肪性 (六十錢)

銷夏漫筆 朝鮮果物禮讚 (十五)

湖岩

果物店을 지날때 林檎의 香氣가 鼻孔을찌른다. 보기만해도 食慾을자어내는 果實의王 林檎을首位로 비롯하야 紫葡가튼李果와 黃金가튼 枇杷와 黃玉가튼복숭아 「루비」가튼 再도、紫水晶가튼 葡萄、하얀 白사과、그他 알롱알롱한개구리참외、얼마前까지도 흔하든 西蕃果、鳳梨等等 이들의 果物은宛然히 靑黃赤白黑의 오깃 五色寶玉을 一堂에 陳列해노흔드시 그燦爛한 光彩가 보는이의眼目을 어리게한다。林檎과 枇杷는 鹿兒島에서 오고 西蕃果와 鳳梨는 臺灣에서 온다。

京城近傍에는 安邊林檎이 有名하나 朝鮮全體에는 黃州사과가 가장 有名하다。연하고도 달고、달고도 香氣로워 風味가 第一이다 드른즉 當地는 雨量이 적고 土質이 지려서 사과의 品質이 조타고 한다。

그러나 朝鮮에 예로부터흔한 名果는 栗棗 桃杏이다 柿는 慶地三南에 多産하고 梨은黃州一帶에特産하는데 大小甘酸이 제각기 달라그品質가 無慮四五十에達하엿스며 그중가장上品의 梨는 甘味와香水를兼有하야 다。그러나 黃州梨는、그當時宮廷의 高貴한이가 아니면 到底히 맛볼수업는 果物이엇섯다。記錄에 依하면 宮中에서 文臣에게 黃州梨의數를 下賜할때 흔히 詩賦의製呈을 命하엿섯다。

黃州梨의 甘味는 옛날에잇서는 참말어더보기 어려운仙果이엇슴에 反하야 栗棗 桃杏및 柿等의 類는 一般人이 누구나 먹을수잇는 常果이엇다。

鳳山栗과 平壤栗과 慶興梨와 壽基柿와 稜城柿는 이들의 代表的이엇고 그중에도 鳳山栗와 壽基柿를 別種으로 꼽게되엇다。然而大谷光瑞는 溫帶의代表的果物로 사과와배를 推稱하엿고 熱帶의代表的果物로「망고」와「망고스진」을 讚譽하엿고 林檎、葡萄및 柿는 溫熱兩帶에共通한美果로 讚頌하엿다。그의可否는 아직 保留하기로하거니와 朝鮮에도 熱帶各國「망고」「망고스진」外엔 溫帶果物것이 모다 잇다。

다만 林檎이 稀少할뿐이고 그餘는 全國을通하야 만히가구는것이며 朝鮮것이 각별히 甘味가잇다고한다。

특히近來 一般嗜好를 맛는 平壤栗가튼것은 그甘味에 잇서는 거의 天下第一이지만 平壤栗에도 成川栗、咸從栗 두種類가잇스니 甘味는 서로비슷하나 前者는 크고갑시 빗사고 後者는적고 갑시 얼마큼 廉하므로 全國的으로 퍼지기는 後者인咸從栗이다 요새는 內地杭州에도 栗木을 만히 栽培하야 杭州栗이 京城市場에서는 거의名產의하나로 처거되엇스나 高麗때 元을 보면開京에왓든宋나라使臣이그때高麗栗은「其大如桃、甘美可愛」라고 極口稱頌하엿다 이것이或은開京附近의產物이엇는지모른다。宋나라使臣이 夏月에 栗이 잇슴을奇異히녀겨 貯藏의秘法을 물어뜨니 高麗接伴員이 對答하되 陶器에 담아땅속에 무더두면一年을지내도 損傷하지 아니한다고 하엿다。

그러나 宋나라使臣이 栗以外의果物에 對해서는 不贊成햇스니 너몰려면 棗는 酸味가 顔와갓고 桃、李、棗、等의類는 그味가 薄하고 그形이 小하다고 하엿다。朝鮮에特有한 海松子(잣)에 對해서도 宋나라使臣은 먹으면 미逢이난다고 하엿다。이는麗人食性의關係도 잇겟스나 잣에 미逢云云한것은 理解하기 어려운 일이다。그後에 宋이亡하고 元이興하매 元이 高麗에 要求하는것은 이海松子이엇스며 이때문에 高麗는 큰頭痛거리가 되엇거니와 오늘날 와서도東京、大阪의健康한商人들은 이朝鮮特產인 잣을 不老藥으로 過讚하야 千萬金의富를 일우엇다 한다。그네들은 海松子뿐이 아니라 白頭山特產인 野蔘까지 特許專賣를 하게되엇다。

現代詩의 生理와 性格
◇長篇詩『氣象圖』에 對한 小考察◇ ②

崔載瑞

一、이메지(心像)의雜多性。氏는 모든方面에서 材料를求하얏다 그이메지는 氣象學 地文學 政治史 古典等으로부터 旅客機 傳書鳩 成層圈 『에ー펠』에미칫고 其他詩에 나올만한 或은 아직까지 나오지 안엇든 모ー든 이메지가 登場하얏다。이것은 詩人의 豊富한智識을말함은 勿論이려니와 또한 그詩的精神이 寬濶하고 彈力的임을 말하는것이다。詩材의擴大는 現代詩의 가장 重大한特徵의 하나이다。

다만 이雜多한 이메지를統一하야 秩序를준다는 點에잇서선 現代詩人의 弱點이 暴露되는境遇가 만하잇다。金氏의 作品에 잇서서도 좀더强力한 統制를要하는곳이 잇는듯십다。『市民行列』에 잇서서의

華奢洋服을 입는法을 알어낸
宋美齡女史

라든지『颱風의起寢時間』에잇서서의

和蘭總督의 붉은수염이 아무래도싱겁다는 때갱이

라든지는 詩의統一을 破壞하여서까지 詩人自身의 知的興味를 滿足시킨듯십다。

二、論理的 連續의缺如。金氏의 詩를읽으면 한이메지와 다음이메지 한行과 다음行 한聯과 다음聯사이에 사모런論理的連結도업다。이것이 讀者의 理解를 몹시困難케하는 한原因이다。

元來에詩는 說明이아니라 直觀의말이다。事物그自身으로하여곰 讀者에게 말케하는것이 詩의 王道이다。따라서 詩人은 對象과 讀者사이에 詩人自身의 主觀의介入을 될수잇는대로 거두치어버리라고한다。『그래서』라든지 『그러니까』라든지『그리고』라는等說明的 接續詞를省略함은勿論 한心理狀態에서 다른心理狀態로 移動하야가는 說明的過程까지도 節約하야 버린다。이것은 現代派詩人들이 즐겨使用하는 手法이여서 가장有名한實例는 英國의에리옷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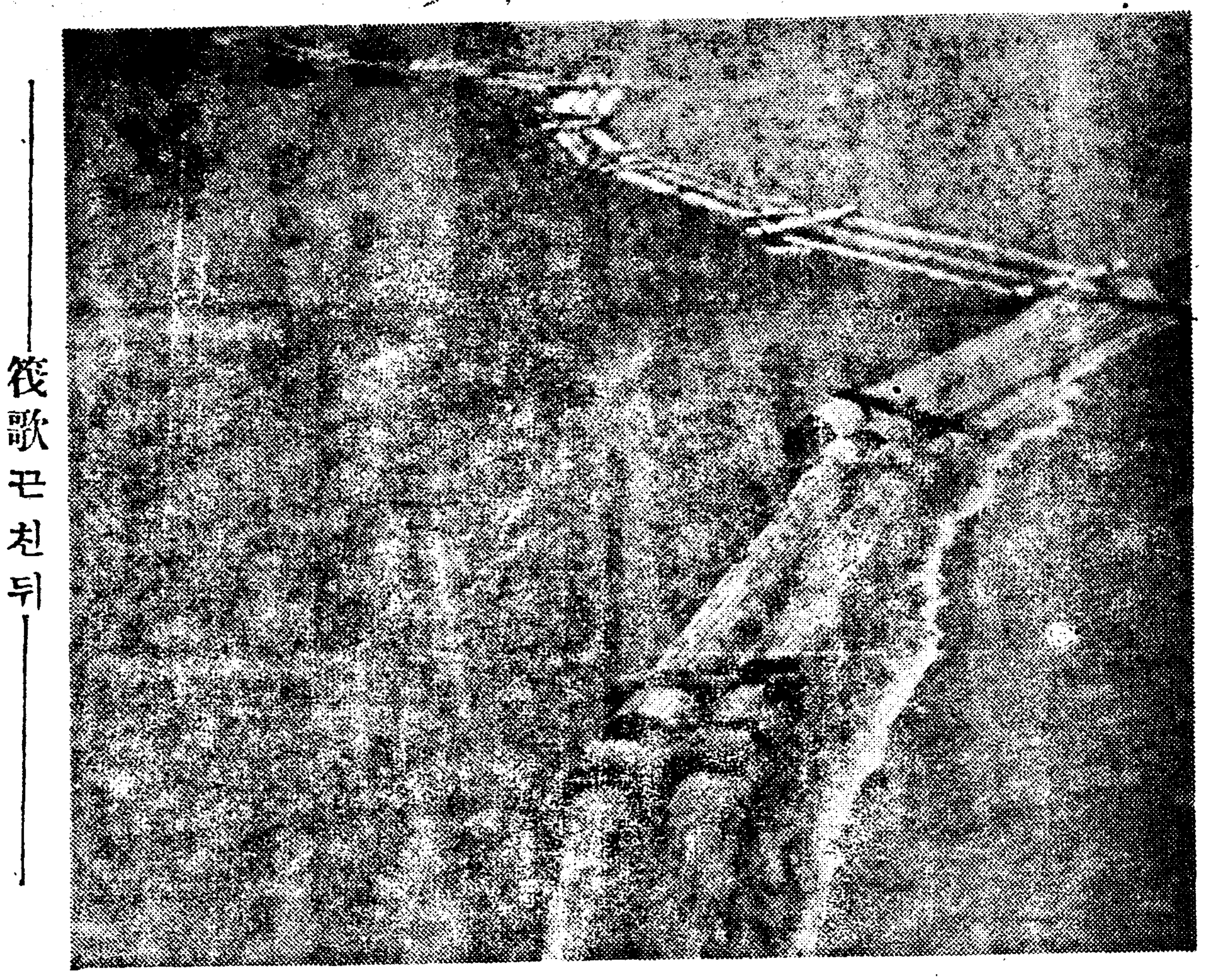
三、收約的效果。그러면現代派詩人이 傳統的形式을 破壞하고 讀者側에 難解의不便을 끼치면서도 이가티 收約的으로 글을 쓰는 動機는무어인가?(一)必要한 모든說明을 넘어뜨려 例外的으로 敏感한 現代詩人의 意識에反映되는 例外的으로 複雜多端한 現代社會의 描寫는 엄청나게 膨大한 長篇詩가 될지니 이것을避하랴함이다。『氣象圖』에서 一例를引用하다면『病든風景』가운데에

지밟혀느러진白沙場우에
매마자검푸른『빼나나』껍질하나
부프러오른구두한짝을
물결이차던지고도라갓다。
海濤은도하나
命을喪함을삼켯나보다

라는一節이잇다。이六行詩가운데에 길고긴 悲劇이 壓縮되어잇슴을 우리는깨닷는다。(二) 이收約的文體로 말미아마 結果되는 言語의 經濟와 스피ー드感은 無條件하고 現代人의 趣味와一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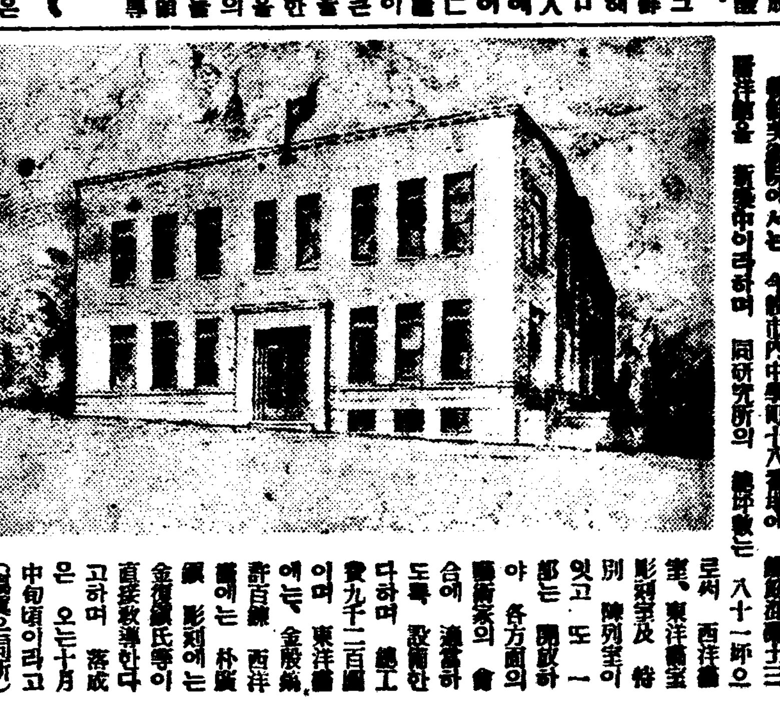
以上에 技巧上 特徵을든것은 詩에 統一이업서도 조타는것을 說明하자는말은 아니다。現代詩가 아모리 表面에 論理的連絡이 업다할지라도 內面的統一만은 가저야할것이다。現代派詩人은 이內面的統一을 感性의一貫性에依하야 求하랴고한다。그는 類似한이메지 或은對照되는이메지로 詩의한場面을 構成하되 그하나하나가 가지고잇는 雜異的意味에價値를두는것이아니라 그것들이 맨드러내는 시추에이슌(局面)一터욱히 그局面에서 自然스럽게 우러나는센티멘트(感性)에다 統一의契機를준다。

이런點으로볼때에『氣象圖』는果然얼마나한 內面的統一을 成就하얏슬까?이點에잇서서 가장만히 成功한部分은『자최』와『病든風景』의 二章이다。前者에잇서선 現代를 諷刺하는 眞摯하고 辛辣한 精神下에 表面上으아모連絡도업는心像들이 다음다음排置됨으로서 各其適切한 役割을演出하고잇다。後者에잇서도 各場面은 서로아모런連絡도 업스면서도 그들이 비저내는 시츄에이슌과 잇그시츄에이슌에서 울어나는 쎈티멘트ー現代人의 疲困하고 索莫한 心理狀態를 서로서로 도아가며 意匠化하얏다。그러나『市民行列』과『颱風의 起寢時間』에잇서서 이만한 緊迫味를 맛볼수업슴은 엇전까닭일까? 그것은 詩人의 精神과 技巧를表示하기에 奔走하야 그들의 內面的統一을 돌보지 안흔까닭이 아닐까? 眞一 그러라면 詩人으로서 만히 생각할바인가한다。



筏歌끈친뒤

朝鮮美術院 研究所新築



朝鮮美術院에서는 今般市內中學町十八番地에 鐵筋混凝土三層洋館을 新築中이라하며 同研究所의 總坪數는 八十一坪으로서 西洋畵室、東洋畵室、彫刻室及 特別陳列室이 잇고 또 一部는 開放하야 各方面의 藝術家의 會合에 適當하도록 設備한다하며 總工費九千二百圓이며 東洋畵에는 金殷鎬、許百鍊 西洋畵에는 朴廣鎭 彫刻에는 金復鎭氏等이 直接敎導한다고하며 落成은 오는十月中旬頃이라고 (寫眞은同所)

夏期學生通信
江華紀行 (一)

法專 李哲

漢江의 河口를 차지하여 까마아득한 史前時代부터의 說話를 爲始하야 爾來 最近世史에 이르기까지 이땅의 興亡과 盛衰를 가슴속에 안고 에달픈歷史의 마드마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江華島를차저서 새다른섬風景속에 새로운 情趣를 맛보라고 蠶龍山에서 江華行 똑딱선을탄것은 七月二十三日 바야흐로 왼長安이 찌는듯한 열한시半이엿섯다。

배가롱당거리기 始作하자 빨래하든 婦人네의 싹ㅅ별가든눈총은 우리에게 集中되엿스며 벌거버슨아해들은 細細히 배周圍에서 물작난을 하고잇다。

내려조이는 暴陽아래 잔비늘지는 물결은 눈이부시며 江건너 孜奕島의 솔은죽은드시 끔쩍도 아니한다。뭉게뭉게피여난 구름은 마치 물을 헤치노흔것갓다。후덥지근한 海霧속에 배는江岸을 떠나니『安寧히 다녀오세요』『잘갓다 오시우』자 그마한 離別을 서러워하며 배는 一直線으로 漢江물을 따러 다름질친다。

롱롱롱、까불대로 까부는 배는 어언간 楊花津 杏州渡를 지나 金浦에 다다럿다 江幅은漢江鐵橋附近의 倍나되며 어제소낙비에 물결은 거세고 濁하야 철석어는 모양은 宛然 바다와갓다。兩岸의堤防은 꼬어서 길어 眼界를 좁게하니 답답하기짝이업다 北漢의連峯가 멀ー리 뒤에 보이며 金浦한들이 잇다금 兩岸에 展開된다

롱동거리는 배가 물결을 헤치는소리 以外에는 이홍홍한 霧圍氣를 깨치는 소리라곤 하나도업다。

도선배는 바람을 먹지못하야 소거름보다 느리고 기름띄운것가튼 물결은 바람조차 일우지 아니한다。

乘客들은 벌서 서로 사귀여가지고 떠들고잇다。

『이러케 가물어서야 해먹을수가 잇나』

『우리게 동내선 牛도 모를못냇다우』

이리하야 여기저기서 別別소리 사나히들은 모여들엇다。

『하날이 하는일 아무리 떠드러댓자 별수잇소 기대려야지』

『앙이、이제는 느젓다우、알계왓차 별수업는일이지』

『난 이번에 빨부 사가지고가는길이라오、그런말마소』

수염난 中老人이 섭섭한드시말하자 배안에는 우숨이 버러젓다。

이때 입빠른 젊은이가 나섯다

『朝鮮은 黃海道와 忠淸道만 잘되면 구만이야 京畿道쯤은』

『그럼 黃海道와忠淸道쌀이 이리로드리어오단 말인가』

『그러지요 별수업고 귀밀이라도 섬어두어야지、그나마도 때를 놋치면 야단이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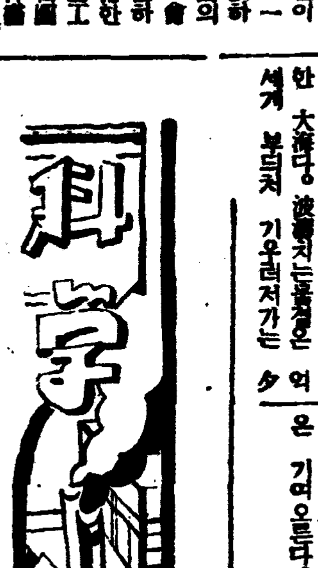
『아니、딴데서 쌀들러오면 쌀갑이오지안나』

『워아니올라요 그러니케 이러저려 조밥이나 지여먹을 八字지요』

乘客은 나루에 着할적마다 오르내리나 話題는 如前히 旱害되여잇다。

배는 바야흐로 臨津江과 漢江의 合流點으로 나아갓다 荒涼한 大海다。波濤치는물결은 억세게 부듸처 기우러저가는 夕陽에 反色비를 띄여 奇怪한氣分이 돈다。

여기서부터는 바다다。찰랑찰랑하는 물가에는 소금밧이고 일고일리고 움질은 언덕을 올오라고 무진애를 쓰고잇다。모래우를 휩쓸고 괴오잇거간 그물결이 삽시간에 形態를 감추면 다시 낫대여 뭇을向하여 물결은 기여오른다。



金剛山雜草
淮陽「노ー트」에서 ①

李甲燮

ㅍ兄! 나는 이여름을 東海岸 三滙바다ㅅ가에서 지내자고 간절히 불너주는동무가 잇섯건만 뭇잣내 이곳에를 오고말앗습니다 바다와山、그어느것이나 最近에자못 **沈鬱**해진나의氣分을 씻서주기에 足하지안흔배 아니나 그래도 나는 나의참을성업는 性格의一面을 잘알기때문에 여곳으로 코ー쓰를 잡아버렷든것입니다

ㅍ兄! 나는 東海의맑은물과그 잔잔한波濤 또한모래와 그白沙場을 한볏로 내려조이는 八月의 太陽빛을 想像해보앗습니다 저 아름다운바다를 엇지 그냥 바라보고만 섯슬수잇겟습니까。나는 이몸을 그波濤우에 실어보지아니하고는 못백일것만가텃습니다

그러나 ㅍ兄도 잘아시다시피이번의나의旅行은 單純한 避暑도 호강도 아닙니다 生의威脅에서 오는 말하자면 憂愁를실은 凄凉한 旅行입니다 醫師는 當分間 遠遊한 東海를 棄하라고 命합니다 나는 어쩌튼 바다의誘惑을 버서나지안허서는 안됩니다 나는 내 **自身**에 忠實하다니보다도 나의恩師와先輩 또나의親友들의 나의健康에對한 念慮에 이바지하기爲하야서라도 誘惑의바다를 저바리려고하지안흘수 업섯습니다

×

ㅍ兄! 이곳에 온지 열흘잣가히되얏습니다 그동안 비는 하루도 빼지아니하고 보기드문强勢로 쏘다집니다 나는 社에서는 물라리로 펄펄 뛸것을 머리속으로 그려보면서도 오히려 徒然히 旅館집二層에서 비에잠긴金剛의이峰 저峰을 번가라바라보고잇섯습니다 비가 걸듯젤듯하다가는 바루 아페 내다뵈는 彩霞峰中턱에서 구름이 일어나가지고는 한줄기는 東쪽을向하야集仙峰으로 또한줄기는 毘盧峰이 잇다는 西쪽으로 갈너저서는다시그北쪽에 퍼집니다 이줄기가 또觀音峰과 水晶峰을 **入口**로하는 溫井嶺을 덥허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비가 쏘다집니다 아마 金剛山、적어도 外金剛의 구름은 彩霞峰에서 생기나봅니다

ㅍ兄! 비는와도 眼界는 單調하지아니합니다 雨勢의 强弱에 따라 또는 구름의濃淡에 따라 뭣봉오리는 七面鳥와가티 자주 그빗을變합니다 엇던때에는 독사와가티 무섭게검어도지고 또 엇던때에는 女人의살결과 가티 희고 보드럽워도 뵈입니다

ㅍ! 그러나 나는아무리 金剛山비탈을 다다미에 곰팡이가끼도록 부질업시 아비를쥐길수는 업습니다。나는 해ㅅ빛이 燦爛히 그립습니다

ㅍ兄! 어제밤 열시가 넘어서부터 저멕봉오리와 하늘의 **距離**가 漸漸멀어지더니자고 별들이 반작이는蒼空이 보이기 始作하얏습니다 오늘아침은 산뜻하게 개엿습니다 우리는 어제밤 늣도록 만약、만약이라는假定辭로 始作되는 話法을傳習하얏습니다 마침때 한가지結論을 어덧습니다

ㅍ兄!이假定辭에 딸르는結論이 무엇이겟습니까

우리는 九龍淵行을 可決한것이엿습니다 이案을 可決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議論이 낫섯습니다 첫재로 問題는 나의健康에 달엿섯습니다 그러나 나의氣分도 이곳에온以後에 퍽조와젓고 도가만히 들어안젓는것보다도 조흔空氣와 景致를 **探賞**하는것이 도리혀낫지 안켓느냐고 생각되엇든것입니다 그보다도 外金剛文局長金東振氏가『아무리 製하답들떠면 大路에 十里쯤어야하고 나를 激動하는데는 내議論이 不凡할수가 업섯습니다 나는 여기온후에 내周圍에 잇는 勇士들一그들은 山을 날려오르고 내리고 한다고합니다一 몰때에 살이라고는 별로 쪄보지못한 내팔을 내노코 혼자서 못내 한탄하얏습니다 나는 自激之心으로라도 이案에 贊成하지안흘수 업섯습니다

兄! 게다가 金剛의 봉오리는 雨後의 햇볕을 바다가지고 銀가루를 떠부은것처럼 회여젓습니다 山골작에서 떨어저야할 瀑布가 山곡다이롱부터 얼음부서지드시 할보로 부서지면서떨어집니다 저 봉오리들은 金剛의 하야 나를 부릅니다그려 아! 山의 誘惑! 나는 오늘새벽 또 되여 그案에 贊成하기를 결정하고 말엇습니다

獨立作家俱樂部 第二回總會記 (一)

在東京 金龍濟 寄

지난八月九日 新宿白十字에서獨立作家俱樂部의 第二回總會가開催되엿다 이俱樂部가創立된것은 今年一月이엿섯다。나는當時아직社會에잇지못하엿슴으로 이번이俱樂部總會에는 처음이다。

作家俱樂部는 創立當時로부터그의組織上問題가 未解決하야서여러가지의 感情的悶着까지를惹起식히여왓다。林房雄、村山知義平林다이子의一一作家俱樂部는어듸까지든지 푸로레타리아作家만으로서 組織하라는意見과 中野重治、德永直、逢川鋼次郞等의一進步的作家도 包含하라는 意見이對立되여왓다。

그러나 그의組織上問題도解決치못하고 뉴ー스도겨우一號를 내인뿐具體的活動도 하기前에 二·二六事件이 勃發되고 戒嚴令이發布되엿다 그럼으로써 集會討議할機會와 自由도업섯든것이다

겨우 新聞雜誌를 通하야林房雄과 中野重治가 甲論乙駁하야와서 그의兩人間에는 絶交的關係까지가 釀成되여잇섯든것이다 그의結果 中野重治等은 新聞記事等의 遺言으로서『敗組派』라는名稱조차 엇게되엿섯다

그리고 林房雄은 自己는現在푸로레타리아作家도 아니고 사람들도 그와가티 말함으로 푸로레타리아作家의 親睦機關인 作家俱樂部로서는 脫退한다는 感情論까지 吐露하야一般社會에서는 林房雄은 脫退한줄로만알고잇든바이다。

이러한狀態下에서 第二回總會를 가지게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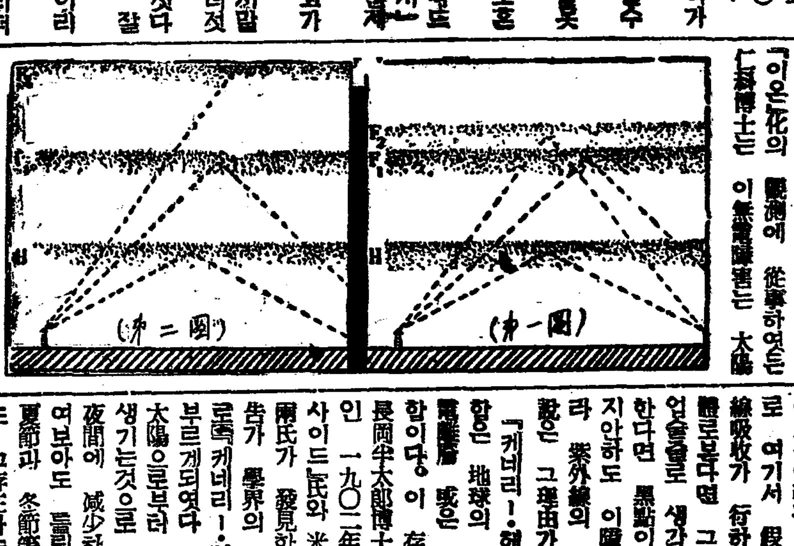
누구나 다아는바와가티 日本푸로레타리아作家同盟이解散된後푸로레타리아作家들은 多種한進步的雜誌에 依하야서活動을하야왓다。그의分散孤獨을 늣기든結果作家俱樂部과가튼 懇談的機關이必要하얏든것이다。

따라서 作家俱樂部는 組織的活動을爲主하는 文學的指導團體는아니고 다만文學的同僚들의親睦과 懇談을目的한『社交的俱樂部』라는것이다 卽『獨立』이라는名稱의由來도 決코誤解하기쉬운『푸로作家의獨立』은 아니고 모든政黨으로서의 獨立無關한意味이다。

左右間以上과가튼 經過이엿슴으로 나는秋田雨雀氏의感想과가티 今般總會의前途가 實로憂慮에갓가운생각으로서臨席하얏섯다 적어도 만흔 波瀾이 잇슬이라고一

科學의「?」
無電의 異變인『데린자ー』現象 (四)

東京 金一鎭



月前 北海道 皆旣日食時에 主로「이온」化의 觀測에 從事하엿든 上森博士는 이無電障害는 太陽 分之一이라는 僅少한 面積이므로 여기서 假令 水素의 紫外線吸收가 行하드래도 太陽面全體로본다면 그다지 큰 影響은 업슬것으로 생각되며 萬若 잇다한다면 黑點이 地球와 正面하지안하도 이障害가 나타낫것이라 紫外線의 變化에 因한다는 說은 그理由가 薄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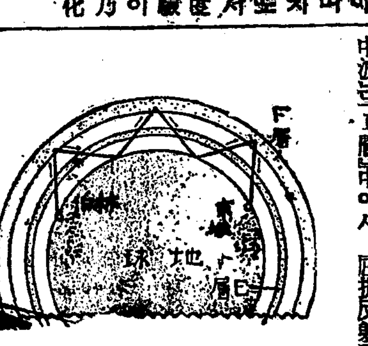
『케네리ー·헤비사이드層』이라함은 地球의 外部를 싸고잇는 電離層 或은『이온化層』을 말함이다。이 存在는 一九〇一年 長岡半太郞博士가 發見하고 翌年인 一九〇二年에 英國의『헤비사이드』氏와 米國의『케네리ー』兩氏가 發見한것으로 後者의 報告가 學界의 注目을 끌엇스므로『케네리ー·헤비사이드層』이라 부르게되엿다 이『이온化層』은 太陽으로부터 紫外線에 依하야 생기는것으로 晝間에 顯著하며 夜間에 減少하는 事實에 빗치여보아도 틀림업는 일이다。또도 그存在하는 높이와 電離度가變하나 最初發見은 電波實驗으로 約百粁乃至中에『이온化層』이 存在함을 알엇스며 其後二百乃至三百粁上空에 第二의 이온化層이 存在함을 發見하엿다。前者를『E層』後者를『F層』이라命名하엿다。最近에와서 다시『F層』이 二分되여『F1層』『F2層』의 兩層을 形成하고잇슴을 推定하게되엿다。上圖의 第一圖는 平常時의『이온化層』第二圖는『F2層』이 非常히 노파지고잇다。

지금 短波에서 問題中인『오림픽實況放送』의 如何히 傳播될을 잠간 考察하기로하자。

지금 어느送信局에서 電波가 射出되면 地面上을 進行하는地表波와 空中으로 向하는 空間波의 二種類로나노어진다。

이地表波는 山岳、樹木、建造物等의 障害物로因하야 遠方에 傳播되지못하고 途中에서 消失되며『라듸오放送局』의 所謂放送區域(서ー비스、에리아)內에잇는 聽取者가 受信하는 電波의 主體이다。國際放送과가튼 遠距離에는 이地表波는 何等效果가 업고 다만 이空中波만이 偉力을發揮한다。이空中波는『이온化層』으로 因하야 反射 或은 吸收되며 그模樣은 波長의 長短에依하야 달으다 卽長波는『E層』下에서 反射되여 地上에 歸來하고 中波는『E層』中에서 屈折反射되여地上에 돌아오며 短波는『E層』을 뚤코 進行하야『F1層』에서 反射되며 이것보다 더짧은電波는『F2層』에서 反射되며 더짧은 超短波는『F2層』도 突破하야버리는것이다 여기에 長波라함은 三千米以上 中波라함은 三千米乃至 百米 短波라함은 百米乃至十米 超短波는 十米以下를말함이다。

이地上에 反射된 電波는 地上에서 다시 反射되여 上空으로 向하며 上空의 이온化層에서 다시 反射되여 地上에 到達하니 이것을 反復하야 結局 地球를 一周하는것으로 地球의 反對側에서도 이電波를 聽取할수잇슴은 이때문이다。지금『베를린』에서 放送되는 電波가 如何한 經路를 밟어 京城 或은 東京에 到達하는가를 調査하면 電波가 地面에對하야 約二十度의 角度로 空中에放送되엿다하면 下圖와가티 大體로 上空에서 約三回反射되여 京城 或은 東京에 到達하게되는것이다



이에 本論으로도라가 考察하건대 電波의 長短으로 反射되는 層이 다름으로 通信可能의 波長 或은 振動數限界는 이『F2層』의存在如何에 關係되는것이다。

新刊紹介

▲春秋 八月號 發行所 京城府壽松町三六 春秋社 振替京城二二一五三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한글 七八月合號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番 定價七錢

▲朝鮮之世界 八月號 發行所京城府大和町二丁目七ノ一 朝鮮之世界社 振替京城一三八五四番 定價三十錢

▲實生活 八月號 發行所 京城府樂園町三〇〇 實生活社 振替京城二二〇九八番 定價十錢

▲ホーム・ライン 九月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ホーム・ライン社 振替東京一二二一番 定價五錢

▲ひとのみち婦人 八月號 發行所 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永和三九三 ひとのみち出版社 定價二十錢

讀者社交

▲本人은 漢醫學士夫生이온대 左記書籍을 讀者諸賢中에서 買得코저하오니 實有하신분은 左記住所로實價送料並히何等 下敎하여주십시오 黃帝內經 朝鮮白紙冊 揀擇二十九冊一秩과 現代鮮漢으로發行하는 漢醫學講義등을 但附冊中一冊이 有하여도좃습니다 咸州郡上岐川面上里四八四 朴元鎭

▲求婚=二十二歲의 女子로初婚에敗하옵고 二十五歲로 三十五歲까지에 商業人에게再婚하고자합니다 前妻子女有無를 不問코 獻身的으로 犧牲하고자합니다 學識으로는 普通科를 다녀슴뿐本人에게는 딸년子女가 엇습니다 有意하신분은 本社交欄을通하야 住所를 알녀주시면 그곳으로問議하겟습니다(仁川求婚女)

▲金福道先生님 그間安寧하십니까? 그러매 先生님 요사이는 어듸게신지요 終始住所를 未知하와 安候도 드리지못하나이다 風聞에 第一劇場에 게신다드니 正말인지요ー 〇〇普校에便紙하엿스나 終始無消息이기 이欄을빌러仰聞하나이다 저는普校六年時第一 작어던金〇〇이올시다 平回示를 仰望하나이다 釜山草梁 高峰生

▲나의親友 咸興荷東里에살든 韓心淑君이여 其間貴體가安康한가 數個年間君의宿所를몰나애쓰든차에 社交란을通하야 君의宿所를알고저하니 社交欄의報道를 보거든速히通知하여주기를 苦待하며 나의住所는平壤府大賓里一六三 聯合基督病院內 朴根浩

本人은家庭教師一人을求합니다(女子에限함)兒童은四人이며全部普敎生입니다 月給은十圓以上食費는本人自宅에서負擔하겟습니다 希望하시는분은 本欄을通하여서나 直接左記住所로나年齡과一般을通知하여주시면 月給은希望대로作定하고 遠處에계신분은車費一切도 보내드리고 案內하겟습니다 全北田溶面 安永昌

▲産婆試驗을 보시려거나 産婆開業을하시려는분으로 眞實習을하시기 願하시거든 左記處所로와서 問議하야주시압 阿峴町三二八 順産院

▲小生이 家事情에依하야 上海를 갈라고하옵는데 엇떠한手續을 밟아야하올지 貴社社交로通하야 讀者諸賢께問議하옵니다。一、最少限度의生活費(一個月食費) 一、語學講習費(一個月授業料) 一、旅行證明手續如何 右記의事項을 社交로오나 [illegible]

버짐 무좀 皮膚病良藥 데ー무水
음낭습증에

主効
음낭습진 버짐
무좀 옴
태독 짐무른데
땀띄 근질근질
백납 쇠버짐
어루럭이 濕疹
두드럭이 부름
藥옷오른데
벼룩、모기、박쥐、빈대
毒虫의刺傷皮脂漏
×××

皮膚病良藥테ー무水가上記皮膚諸症에가장適藥이란것은ー日本의醫學이다보라全國藥店에서 第一만히 皮膚病藥이라하면、누구든지皮膚病良藥테ー무水라고말한다。第一만히팔닌다고하는것은、第一조흔皮膚病藥이라고解釋하더라도올흘것이다。皮膚病良藥테ー무水는 從來의皮膚病藥의缺陷과不滿足을補充하야、가장合理的으로創製된까닭이다。夏季는皮膚病의跋扈跳梁하는時機이다皮膚病은體內의毒이吹出되는것이라고하야、等閑視하여두면當이다。一刻이라도速히皮膚病良藥테ー무水로治療하라

◎特徵◎
쓰리지안코、아프지안코 內攻치안코 냄새업고 더럽지안코 黴菌을죽이고 毒을除去 아프고가려운症을除去、用法簡便하고速히良好하여지는

테ー무水藥價三十錢、五十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藥店에 잇고 藥店에업는時에는直接本元에다代金을送金하하라、卽時送達함
(全國藥店에잇슴)

發賣元 東京芝區田村町四丁目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九〇一〇〇番 東京藥院本店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三五五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支店

模造品이만흐니「테ー무水」라고指名하야買入하라

毛はえ藥フミナイン
田中醫博士의創製藥으로 毛根部에殺菌、興奮、發毛素의合作用을하야毛髮의發生을促進하며 [illegible] 若禿、薄毛、拔毛、毛本定하이는분은 試用하라五十錢、壹圓、一圓五十錢、三圓 (全國各藥店에잇슴)
◎發賣元 前記東京藥院

連載野談 (九六)

布囊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신의잇는편에(十四)

백운국선이 또박게 사나운운수에 잡힌뒤 그 두늙은 재상이 서로 번갈려서 백운국선을 드려다 보며 이때나 깃분동정이 잇스려나 저때나 반가운 동정이 잇스려나 서로 마음을 조이는 양은 차마 보기가 안타가웟다.

이때 제후소저는 것트로는 혼연한 태도를 보이나 속으로는 천지가 문허지는듯。눈의 총명이 흐리고 귀에 들리는것이 분명치못하얏다.

『아아。이몸이 아직 백운국선과 혼례를 갓추어 전안(奠雁)의 대례를 거행치 안헛다할지라도 두몸의 태줄을 끈른 죽시로 부터 백년가약을 굿게 언약한몸 그러커니 백운국선의 불행이 곳 이몸의불행 백운국선의 영광이 곳이몸의 영광。슬픔과 경사。영광과 욕되는것뿐 아니라 죽고 사는것을 백운국선과 갓치할 이몸。설혹 백운국선과 백년가약을 약속하얏다 할지라도 내아직 규중의 몸이어니 이런생각을 하는것이 옹당 규중례절에 억으난 생각이라하겟지。그러나 백운국선이 아니면 내어이 이런생각을 자어내랴。이몸은 백운국선에게 밧친지가 벌서 오랜 몸。』

하며 제후소저는 지난일과 장차 돌아올일을 두루생각할새 백운국선이 신음하는것을 위하야 뛰어가고도 싶고 백운국선을 업사안고도 싶고 또는 업사안고서 울고도싶헛다.

만일 길고 길흔 규중에 잡긴몸의 모든체면、모든 례절을 다 바처버리고 백운국선에게로 뛰어간다하면 한거름에 십리길을 능히 뛸뜻도하고 만일 백운국선을 업사안는다하면 발톱끗、손톱끗에서 부터 원통의 힘을 두팔에 모은뒤에 그힘이 다진토록 업사안고싶고 만일 운다하면 원통해서울고 도는 붉고 뜨거운 피를모두 모아 두눈의 눈물을 맨들어 가지고 그피눈물이 다자지도록 울고싶헛다。

그러나 제후소저는 백운국선을 휘감은 그악한 운수를 그 업사안는힘。그 흘니는 피눈물로서는 어찌할수 업는것을 잘 아느니만큼 더욱 가슴이터질듯 하엿다.

백운국선이 이와가티 큰 악운에 잡힌뒤에 그 두늙은 재상과 제후소저가 모두 압길이 절망이되게 되것을 슬퍼하는것은 물론이오 김천도 한편으로는 백운국선의 불행을 걱정하고 또한편으로는 자긔의 신세를 한탄하야

『하하。내팔자ㅣ과연 긔구하고도 험한팔자。내일직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설니설니 잘아나서 칼을들고 자객노릇을 하게되것은 때를 엇지못하고 알어주는 사람을 만나지못한 탓으로 한때 울흥한 마음을 의이지못한 큰난봉의짓。그것은 분명 내본의가아닌 죄악의짓。그러다가 다행히 백운국선과 가튼 어진사람을 만나 내평생을 부탁하게 되것이 그어찌 천우신조의 일이 아니엿든고。그런데 한늘과가티 밋든 백운국선이 저러틋 모처운수에 잡힌것이 이무슨 운수?。만일 백운국선이 영영 그불행에서 버서나지 못한다하면 그것은 백운국선자신보담 그 늙은부모에게 큰불행、제후소저에게 큰불행、우리 신라에 큰불행、모두로는 이몸에 큰불행。아아。긔구한 내팔자여!。』

하며 김천은 위선 자긔의 불행된것을 비롯하야 여러가지로 불행이 올것을 념려하며 드거운 눈물을 흘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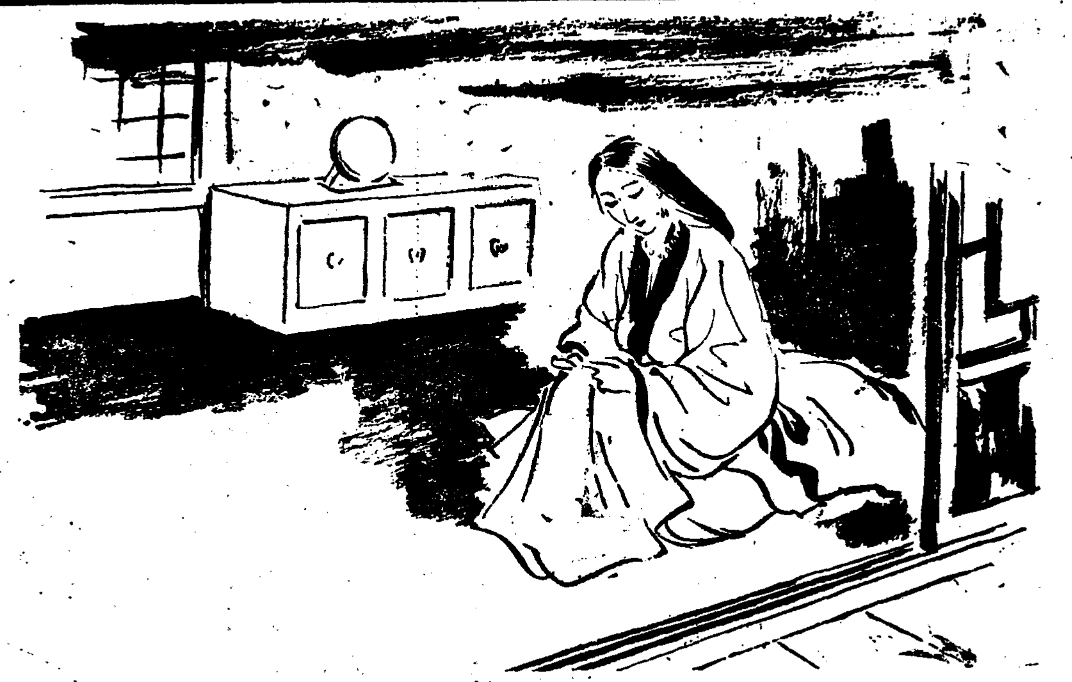
이미 김천은 백운국선의 불행을 구하려는 마음이 그 두늙은 재상과 제후소저만 못지아니하야 여러가지로 구원할길을 생각하다가 문득 깨닷음이 잇서서 곳 흥행사의 뎌가대사를 차저 흥천(興天)에 밝히하야 주기를 청하얏다.

『허허。전생부터 마련된 그액운이 이런 불행이 잇스므로써 백운국선의 불행을 어이하랴。백운국선이 잇스므로써 행한 백운국선이 잇게되고 그럼을 제후소저가잇고 김천이가 잇게되것。허허。모두가 팔자 모두가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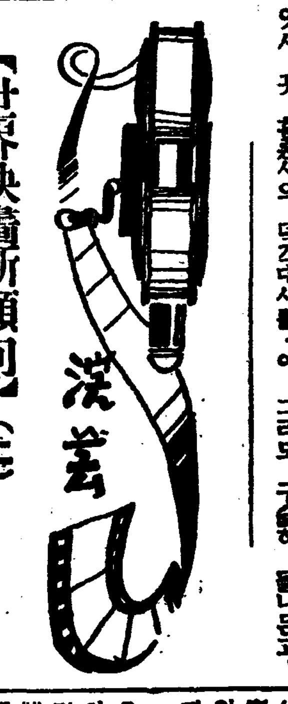
뎌가대사는 김천을 바라보고 빙긋이 웃는다.

명그래!。명그래!。명그래!。

흥행사에 단녀 흥경소리 요가엽는것을 말하며 서무봉 ... 는 무심히 나는 소리언만 이소리를 듯는 김천의 마음은어이 그리도 구슯히 들니든고。



『게ー블』과『데드릿히』가『헐리우ー드』放送局에서 "레제오네이어・엔드・더・레듸ー"란는 라디오・드라마를 放送할때의 스냅



演藝

【世界映畵新傾向】(二) 토ー키ー와 映畵劇作法

② 林 藹 川

그러나 여기서그것을批判할餘裕는업다。다만 音響이追加된資本으로된 토ー키ー로서 쇼트(畵面)을構成하는方法이『시네마스트』의社會的立場을 表明하는것인 以上 資本主義토ー키ー의 演劇化의傾向은 하나의社會的欲求로서 說明할일이다 토ー키ー에는 音響이잇스니까 노는程度의 人間의 心理描寫를 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는 抽象論은 무르謬인것을 알어야 할것이다』(今村『映畵的表現의特性』唯物論 研究 八月號)

또는토ー키ー가演劇的인것으로 흘르는 傾向으로말하면 그것이 映畵를活潑한 必然的인方向으로 引導하는길이아닌것을 理解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

내가 여기서 말할려는要點은 한가지로서 說明할수가잇다 卽 映畵劇作法으로서映畵的方法의根本命題를規定할려고하는 傾向이다 上段에서 映畵의 듀라마틱 方法은 映畵劇作法을觀察함에잇서어 對照點에슨傾向으로서 摘出한것뿐이다。

짝크、페데르의『미모자館』을分析하면 그것이近代佛蘭西의小市民的舞臺劇과 同一한性質을가진作品이다。批評家의多數는『미모자館』을激讚하고잇지만 映畵劇作法의見地로서본다치면 舞臺劇의模寫或은 擴大鏡으로延長시긴 듀라마에지나지안는것이니 토ー키ー獨自性의强調도업고 新鮮한맛도업다。이런意味에잇서서『미모자館』가、암만오리지낼스토ー리로서 맨들려진 映畵라하드라도 다른 藝術이 包有하는 心理主義的方法을 無批判的으로 揷入시긴것을뿐이다。짝크・페데르라는 監督은 적어도 有能한 映畵作家이지도 모른다。그러나 그의 作品에 나타난 映畵表現法이라는것이 技術的인 問題는 論外로하고、映畵가운데서 듀라마틱한 意味의 俳優와 演技를 强調하는데서 토ー키ー의 오리지낼메토ー드를 말殺시키고잇는것은 페데르의 技法이 個性解剖가 優秀하고 心理描寫가 徹底하다고 할수업는것이다。다시말하면 映畵表現이 그映畵的構成을 現實의 歷史社會에 잇서서 分離하지아니하고 獨自的 表現方法과 반해버린 個性을 들어서 그것의 시츄에이숀을 따고잇슴뿐이다。하필『미모자館』이 아니라해도 演劇的要素로 裝飾된 作品(映畵)은 無數로 잇다。우에 말하엿드시 資本主義토ー키ー가 演劇化하는 傾向은 社會的欲求로서 說明할것이다。

資本主義社會에 잇서서 映畵라는것은 하나의 商品으로서 울어잇기때문에 企業으로서 生産되는 映畵이고 資本의安配미에서 올혀잇것은 물론이고 最近의 아메리카、英國等의나라에서는 푸로듀ー사의地位가 資本을擔保하는 반또(番頭)노릇을 積極的으로 敢行하고잇는 傾向은 구라여 說明할것까지도업슬것이다。

루네・클레ー루의『조흔 映畵라는것은 돈을만히 버는映畵다』라고하는 어떤映畵劇場支配人의말을 引用하면서 現在의 映畵의地獄狀態를 그말가운데에다가 因果關係를두고 잇는것은 傾聽할만한것이다 따問題지만 여기에連關되는것으로 資本과 映畵의關係——依存關係가 重要하지안흘수업다

大體 映畵의技術이라는것도 資本으로서울혀잇고 잇는것이다。資本과 노벨트리ー를 無視하는 映畵企業이라는것이 存在할수업는것이다。아방카르드(前衛映畵)가 興行을 眼中에눗치 아니한다치드라도 그것은 바다에뜬나무입과가튼 微弱한存在다。시네마스트가 가진映畵的行動의 手段이라는것은 技術者가 건너준것이다。技術者의 發見이라는것조차 資本家의 意志에따라 左右되는것이다 그럼으로 토ー키ー는 어느때어데서든지 오름뜨더ー가싸이렌트를죽이고만것도 도리의關節을 自由自在로 떼엿다가 붓치고 붓첫다가 뗄수잇다는멀지아니해서 色彩立體映畵에 依해서 現在의토ー키ー가追放을 當하고말것도 映畵藝術家의 意志에依할것이아닌것은明白한일이다。

演藝消息

스타ー와怪癖

◇

聚林의俳優들中에는 이상야릇한珍癖을 가진사람이만타 실버・돈너ー는 다른사람이 想像할수도업는 奇癖이잇스니 그女子도안對한다

◇

모ー리스・슈ー바리에는 무엇이든지 藝던으로 한조지몰에겁치지안코는 外出도하지안코 사람을만나지도안는다

◇

크로렛트・콜벨은 접어나방에나 나갈때는 반드시들어올때의 문을열고 나가지안흐면 마음이께름해서 못배인다

◇

그레파・갈보는 出演할때 自己의발이보이지만흔 場面에는 반드시 맨발로出演한다

라듸오

二十一日(金曜)

◇午後六時三〇分 名作少年映畵이야기 잔듸의꿈은 成東鎬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매암이이야기』 盧福成
◇同八時 講演『朝鮮의特産物巡禮』(十)總督府商工課 鄭在性
◇同八時三〇分 音律『蟹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 古談『一飯必報』 申淸居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歌 鼓手 丁元俠 林小石

第一放送 波長三〇九米

◇午後六時(釜) 피아노와童謠 松井千秋外
◇同六時二五分(德) 講座 關屋五十二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山口察常
大倉邦彦
◇同八時(東) 明笛 和田紫水
◇同八時一五分(東) 世界名士의목소리
◇同八時四五分(大) 詩吟 伊藤長四郎
◇同八時五五分(東) 浪花節 東家樂燕

二十二日(土曜)

◇午後〇時〇五分(東) 輕音樂
◇六時三〇分 童謠 白鷗會
◇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週間時事 朝鮮中央日報 李相燾
◇同八時 講演『朝鮮의特産物巡禮』(十一)總督府商工課 鄭在性
◇同八時三十分 流行歌 一、바다의젊은이 二、꿈에도故鄕생각 三、흘너간녀름 四、봄은흐른다 五、旅路人生 六、바다의캐라반 伴奏 DK管絃樂 尹鍵榮
◇同八時五五分 노들江邊外 一、노들江邊 二、도라지打令 三、밀양아리랑 四、청춘가 五、방아타령 六、노래가락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玄山玉
◇同九時二〇分 라듸오・드라마 "돈" 一場

一配役一
喜劇俳優……朴魯多
惡 役……張甫羅
悲 役……朱象玉
老 役……徐南水
女主人公……張河淑
少女 役……白英喜
老婆 役……金少嫻
行 人……李云永

鈴蘭郎
演出 朴魯多
效果 李메리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速成獨語講座(十四)
◇同一〇時三〇分(大) 婦人時間
◇午後〇時五分(東) 輕音樂
◇同六時(名)『夏休王手箱』
◇同六時二〇分(東) 아이의新聞
◇同六時二五分(高) 趣味講座
◇同六時五五分(東)
◇同七時三〇分(大) 納凉이야기 커ー렌트토픽스
◇同八時一〇分(東) 歌謠曲
◇同八時二五分(東) 라듸오小說 半七捕物帖 岡本綺堂作 澤村田之助
◇同九時 時事解說

二十三日(日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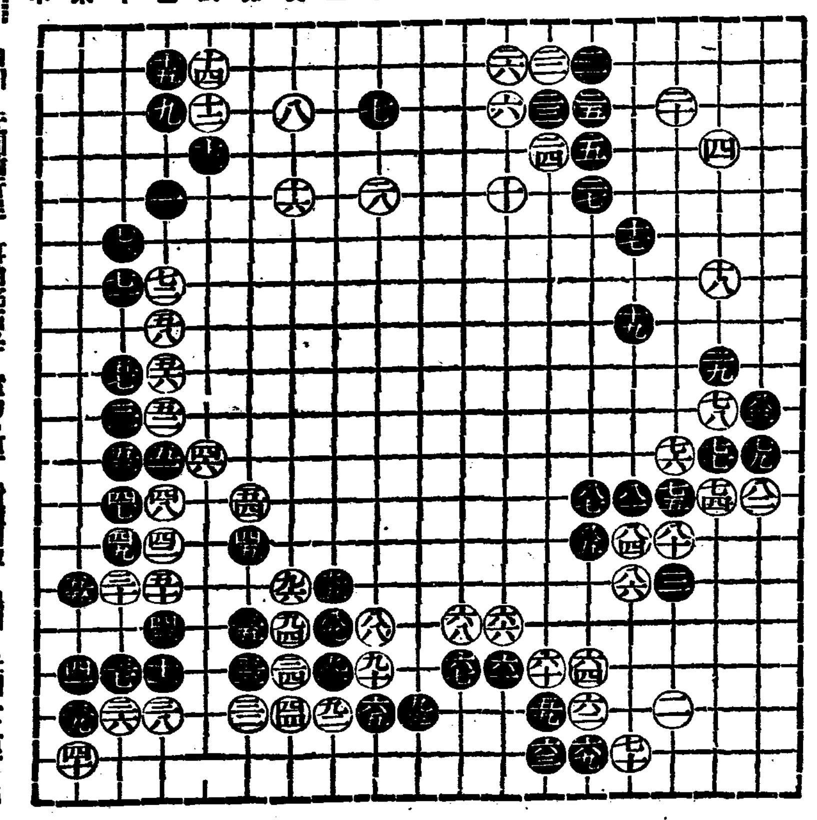
◇午後零時五〇分 獨唱 邊淳愛 一、사랑가……廣作曲 二、小夜曲……로젤리作曲 三、小夜曲……슈ー베르트作曲 四、아베마리아……슈ー베르트作曲 五、달밤……슈ー망作曲 六、솔베ー그의노래……그리ー그作曲
◇同一時二〇分 푸른山中外 一、푸른山中 二、楚漢歌 三、배다라기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번조난봉가 七、개성난봉가 李蘭玉 鄭錦桃
◇同六時三〇分 兒童劇 京城어린이放送會
◇同六時五五分 講演 鄭泰熙
◇同八時 吹樂 一、吹打 二、念佛 三、굿거리 四、방아타령 三昌吹樂團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三、顧草廬 李東伯 鼓手 韓成俊
◇同九時 古談『幾死回生』 張志浩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歌曲 一、編樂 二、編 三、太平歌 河圭一 金蕉紅 玄琴 金雨坍 洋琴 金相淳 大岑 金永根 杖鼓 金宇一

第一放送

◇午前六時卅分 農村講座 陸地棉栽培法의改善 木浦棉作支場長 增淵次助
◇同九時卅分(東) 管絃樂(解說付) 一、歌劇『윌리암텔』序曲 로시니作曲 二、行進曲『雙頭鷲의旗下』 바그너ー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니콜라이・씨펠부라트
◇同一〇時四〇分(福) 講演
◇同一一時一〇分 萬葉物語 新羅의尼理願 安藤乾幽
◇同一一時四〇分(大) 海外市況
◇午後零時五分 滿洲로부터(哈爾濱) 講演 佳木斯農村移民團實生活
◇同一時二〇分(東)(大) 漫才
◇同二時二〇(東) 吹奏樂 一、行進曲『스로ー즈』 二、應曲『樹下의音樂會』 三、敍事組曲 (가)牧童 (나)목위의農夫의行進 (다)夜想曲 (라)傀儡의行進 陸軍戶山學校軍樂隊
◇同二時五〇分(東) 舞臺劇 世話狂言의硏究(第四回)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樺太의夕 拓務大臣 永田秀次郎
◇同七時四〇分(札) 講演 樺太廳長官 今村武志
◇同七時五五分(札) 一、唱歌와童謠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6—

白 蔡極文
黑先 丁奎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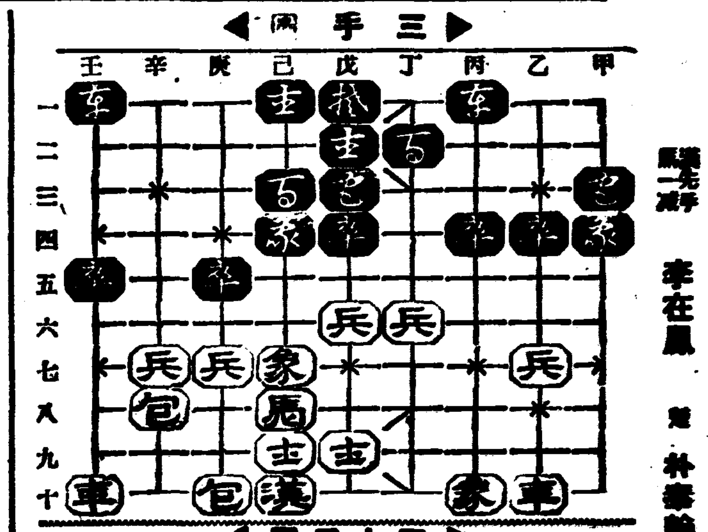
○六一 戊의十二
●六二 乙의十二
○六三 乙의十
●六四 戊의十三
○六五 己의十三
●六六 戊의十四
○六七 己의十二
●六八 子의十五
○六九 丑의十五
●七〇 子의十六
○七一 丑의十六
●七二 丑의十七
○七三 癸의十七
●七四 寅의十五
○七五 丑의十四
●七六 寅의十四

▲對局者談 白이 迂回曲折로 耳角完占은 實力으로 看過되고 黑이 丑의一五로 白이 丑의十七로 擴하면 中斷을 要하은 不必要로 看做된다 만일 白이 丑의十七로 斷치말고 處理가 極難으로 自滅하는 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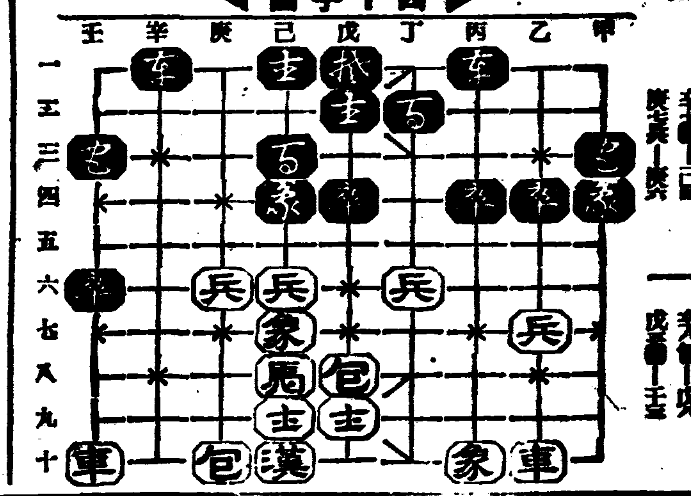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四)

漢 先手 李在鳳
楚 一手 朴泰輪

◀三手圖▶



◀四十手圖▶



庚十車—庚五打卒
己一車—辛七打兵
庚五包—庚十
辛七馬—己八
庚七兵—庚六
—
壬十車—壬六
戊六兵—己六
壬一車—辛一
辛八包—戊八
戊五馬—壬五

☆曆☆

八月廿二日(土) 舊丙申七月大(初六日)
丙子・水・氐・定
●祭祀冠禮時刻은卯時坐向은西南
●修造移徙裁衣動土上梁卯時開市納財啓攢에吉함
●處暑二十三日(舊初七日)
●白露九月八日(舊廿三日)

武田發賣品

月經不順

卵巢實質ホルモン

オオホルミン(오오호루민)

月經寡少、卵巢機能障害
結婚期前後의神經障害

特히、四・五十歲前後 에온다…
下腹痛、腰痛、頭痛、心悸亢進發汗、上氣、肥滿症、眩氣、肩臂痛
其他生殖腺호루몬不足減退에基한
諸症患에奏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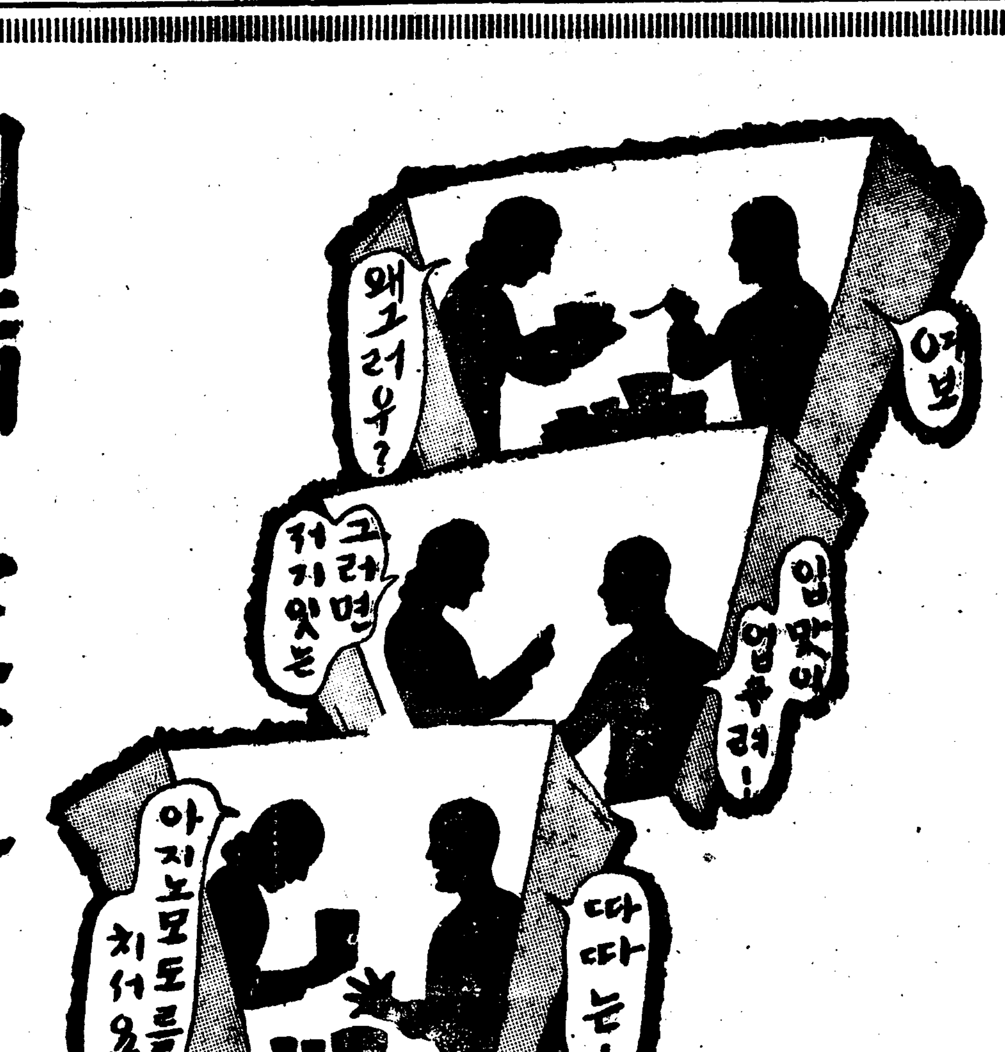
오오호루민은卵巢實質호루몬製劑로서卵巢호루몬의分에不足減退、缺落等에由來하는神經系生殖器系等全身的諸症에應用된다

錠 … 注 …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關東代理店 東京市本町 小西新兵衛商店
製造元 帝國社臟器藥硏究所

36 475(O)

圓滿한家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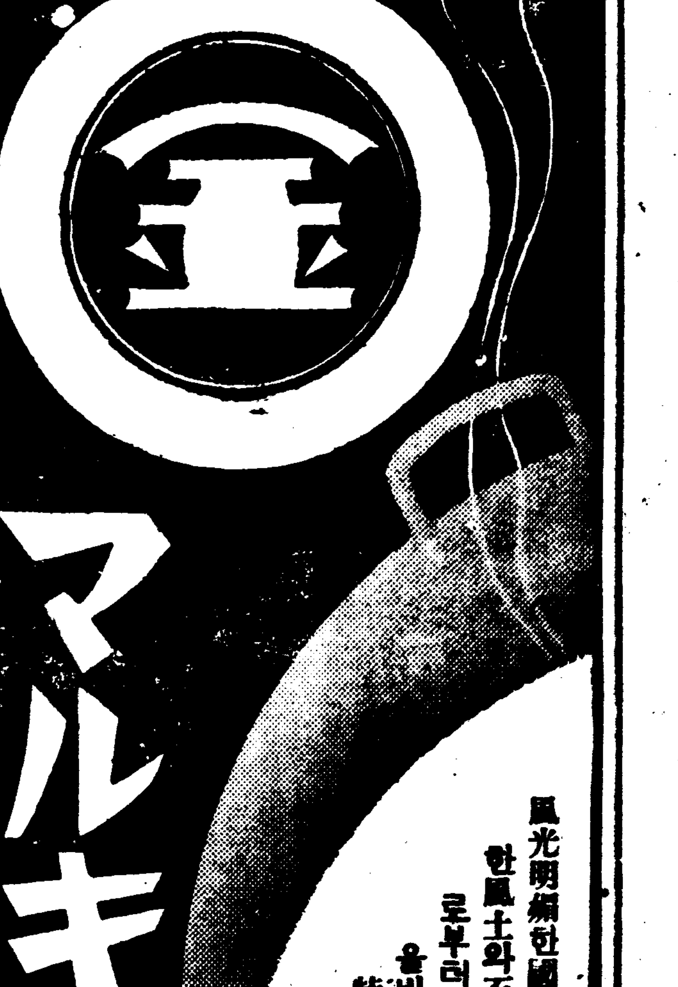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味の素本舖・株式會社・鈴木商店

(8—4)



マルキン醬油

風光明媚한國立公園「瀨戶內海」의四季溫暖한風土와石山「寒霞溪」의巖層의深奧로부터湧出하는淸冽한물을바더製造하모로特有의良味와香氣를갓고잇습니다

香川縣小豆島 丸金醬油株式會社

靑春座第七回 八月十四日낫부터上演 —消暑特別興行週間—

崔獨鵑脚色

一、春香傳 八場

다시두번 說明을要하지안는 春香傳!萬古의烈女春香傳은東洋劇場舞臺에올님으로비로소그갑이알녀젓섯스며靑春座員의演技로비로서 그人物들이살엇섯다 이名劇을다시두번만보드도한뜻이잇는일이며보면볼수록感銘이깁허지는劇이이春香傳이다 볼수록갑이잇고볼수록보고십흔이劇을이번機會에또한번보시라

二、悲劇 不具의안해 二幕 周峰超作

한사나히를싸고도는세갈내의사랑싸움!不具의안해를버릴것이냐돌것이냐 여기에한사나히의苦悶은생기고온갓悲劇이짜내여진다 그러나人情!이것은모든富와貴를超越하야 한개人間으로서의快活한길을것게한다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光(三)二二〇

十九日特別大公開
御後援 大阪朝日新聞京城支局
第一回 晝之部 一時三十分
第二回 夜之部 七時〇分
第三回 ...

新興キネマ提供 嵐寬壽郎プロ超特版豪華版
原作 吉川英治 監督 瀧澤英輔

宮本武藏

嵐寬壽郎 主演 オール・トーキー

新興キネマ大泉超特版大作
原作『チエホフ』 脚色 國廣周條 監督 村田實

櫻の園

オール・トーキー
杉山溫三九、森靜子、毛利峰子、久松美津枝、歌川八重子、荒木忍、嵐德三郎、助演
霧立のぼる 主演
夏見洋、千田是也、南部章三、東山千榮子、村瀨幸子、浦邊粂子 助演

中央館

永樂町 電話本局(二)三三番

京江交通復舊遼遠
經濟界에도大打擊
每日萬餘圓의物貨移動頓挫
江陵一帶當業者恐慌

【江陵】 경성강릉간 도로가 굴번수재로 인하야 수십개소파손되어 금후일여의 시일을 가지여야 겨우 원상회복이 될것이라한다 그리하야 강릉을중심으로 대화(大和) 횡성(橫城) 원주(原州)등지에 향하는 해산물과 이동지에서 곡물들의 이입등이 전연두절되어 이러한 물건을 취급하고잇는업자의 타격은 막심하다 이제평상시의 해산물과 곡산물의 매일이출입액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해산물 육천오백원 곡산물 오천여원이라한다

錦山地方水害
交通網에尤甚
人畜死傷全無

【錦山】 금산지방에는 지난칠월십오일부터나리기 시작한비가 지난팔월십오일 까지에 오백사십머리(五百四十九石九斗五升九合餘)나 나리여 인축의피해는 별로 업섯스나 오래계속된 장림으로 홍수가 나게되야 가옥기타전답급교량의 류실등이하야 손해가 실로 일만사천여원에 달한다는데 자세한피해상황을 수자로 본다면 다음과갓다한다

◇水災被害狀況

一、人畜無

二、家屋의流失 全潰 半潰 床上 浸水

가、住家—四戶四棟、六戶六棟 十一戶十一棟 三戶三棟 二十七戶二十九棟

나、其他建物 一戶一棟 三戶三棟 三棟 二戶二棟 三戶三棟 三戶

三、農作物의 流失 埋沒 浸水 被害額

가、田、四六反 二三八反 九七一反 八、○一四圓

나、畓 八四反 一七○反 二三一六反 一三三、五七九圓

四、道路 決潰個所 延長 被害額

가、三等道路 八四個所 一六、一七米 五、六○○圓

나、等外道路 二五個所 七、一二米 八一五圓

五、橋梁

가、橋梁 一個所

나、暗渠 一個所 一、五七○圓

六、堤防 決潰個所 延長 被害額 七五個所 二、二五七米 二、三九六圓

總被害額 一萬三千六百卄四圓也

乘車客을노리는
列車窃盜橫行
—乘車客의注意할일—

【大田】 얼마전에경부선(京釜線)과 호남선(湖南線) 렬차중에서 절도가횡행하야 철도당국의머리를알케하고 승객을안심치못하게 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요사이는 또다시호남선렬차중에 절도가횡행한다

◇지난륙일오후여덟시반경 호남선상행렬차가 송정리(松汀里)와 림곡(林谷)간을통행할지음에 목포사는 송미(松尾)라는 사람의현금삼천원을어느자가 훔처가버려 일대소동을일으키다가 동렬차변소에서 차젓다고한다

◇지난 칠일오후 호남선 삼백륙호 렬차가 리리(裡里)론산(論山)간을 통과할지음에 군산사는 령목(鈴木)이라는사람이 돈구십륙원을 절취당하엿다고한다

◆…십륙일 오후열시경 황간(黃澗)사는 김모(金某)라는 사람이 어데갓다가 집에 돌아오는길에 차표를 사고잇는중 소지금전부를 어느자가 훔처갓다고한다

釜山體育會主催
全朝鮮庭球戰

【釜山】 부산체육회에서는 다음 요항에의하야 전조선개인 정구대회를 개최하려는데 각지정구선수들은 만히 참가하야주기를 바란다한다

一、日時 八月三十日午前九時 (雨天順延)

一、場所 府內草梁町東部里一—五 釜山體育會競技場

一、申込期限 八月二十八日午後六時까지

一、申込所 釜山中島町二丁目六九 釜山體育會事務所

一、參加金 每組二圓 (申込時納付)

一、賞品 體育會서擔當 大會當日發表

一、優勝者에는 優勝旗及副賞을授與함

一、規則 十一年度大朝鮮庭球年鑑規定에準함

安邊長老敎會主催
兒童聖經學會

【安邊】 함남안변읍내에잇는 장로교회(長老敎會)에서는 례년에 의하야 지난이일부터 이주일동안 동교회례배당에서 하기아동성경학회를 개최하엿다는데 [illegible] 성적으로 교수에 진력하여주어서 [illegible]다고한다

木炭檢查制實施後
不良商人이跋扈
商人及消費層에는損害不少
生產者에도不便莫大

【元山】 목탄(木炭)의 품질통일을 향상시킬목적으로 지난팔월일일부터 도령으로 실시한 목탄의 규격통제(規格統制)에 대하야 벌서부터 목탄상인간에는 반소비자층으로부터 비난이 점차노파가고잇다 즉 도내에서 매매하는목탄은 검사를 바든것이나 그러치안흐면 도(道)의 인정증표가잇는것이 아니면 취급치못하게하엿는데 이로말미암아 불량업자가 발호하야 조악한품질의무검사품을 각가정으로 도라다니며 팔고잇서서 목탄상전선에 크다란이상을 주고잇서 업자들은 큰곤경을당하고잇스며 이에반하야 소비층에서는 불량목탄상의발호로 관수와품질이 낫분것을 사게되여 큰손실을보고잇다고한다 이러케 목탄검사제가 실시이후 상인과 소비층만이 타격을받고잇슬뿐아니라 생산자들도 일일히 검사를바더야되므로 적지안케 곤난을당한다고한다

醉中亂鬪劇演出
酒朋毆打致死

【光州】 전남함평군학교면마산리 노복조(盧福祚)(三二) 박병수(朴炳洙)(三二) 박사일(朴士一)등십여명이 농작물에제초를하고 동일오후십시경에 술자리가 되야 말다툼을하다가 노복조를 수인이 달려들어 구타하엿는데 노복조는 복막(腹膜)이 상하야 그후 시에 사망하얏는데 그급보를 드른 소관함평서(咸平署)에서는 즉시사체를해부한결과 구타한것이 판명되엿다한다

平壤冷麵中毒事件
豚肉腐敗에基因
警察署、調査로判明

【平壤】 평양부내 평천(平川)이십이번지 리용현(李龍賢)의집에서 생일축하를 하노라고 냉면을주문해다먹고 식사후에 중독되여 평양서에서는 황금정(黃金町)조선면옥(朝鮮麵屋)에 출장하여원인을조사한결과 냉장고에 고기를 너허두지안헛기때문에 고기가썩어 중독된것으로 판명되여 취조중이라한다

關北蹴球盛況
優勝은吉州軍

【吉州】 길주축구단의 주최로 제사회 관북축구대회는 지난십오일 길주공보교 운동장에서 거행되엿는데 그와같이 세계마라손의 패왕 손(孫)、남(南)량군의 위업을 축하하는 전보를 손기정 남승룡 양군에게 보내고 경기를 시작하얏다 최후결승전은 백열전을 계속하다가 길주군이 우승하엿다한다

苦悶하는肥料商
小賣商은契約解消要求
都賣商은損害賠償請求
—法院에나타난現狀—

【平壤】 평양지방법원창구에 빗최인 사회상은 어떠한가? 금년도말까지의 민사취급건수는 작년동기에 비하여 오십여건의 증가를 보앗는데 이현상은 변동가의 도정에잇다。 중요한것은 발전도상에잇는 도회지세계가 농후한 가옥명도(家屋明渡) 토지관계의 소송이 단연증가해지고잇서서 토지열이나흔 비록이라할것이며 그다음은 입시저현상일것이나 비료도매상대소매상의 계약해제에관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이것은 금년 비료의 가격이 싸기때문에 소매상인은 이긔회를따라서 매수계약을 도매상과 체결햇섯스나 십수년이래 처음보는 대한발로 인하야 백답(白畓)이 만여정보에 달햇기때문에 비료가 팔리지안흘뿐아니라 로값은 폭락하고만잇스므로 소매상인은 계약해제를 요구하게되여 손해배상요구소송이 닥지하는 기현상을 보히고잇다。

地方人事

◆金永河氏(永興警察署警務主任) 轉任人事次本報元山支局來訪

◆堀武一郞氏(宣川郵便局長)新任人事次本報宣川支局來訪

◆咸恩倫氏(宣敎師)安息年으로歸國中今般歸宣人事次同上

長白縣에痢患猖獗
每日數十名死亡

【安東縣】 장백현(長白縣)일대에 리질이 창궐하여 매일 이십여명식이나 죽는자가 잇다는데 당국에서는 예방주사를실시 하는등 방역에 로력중이라한다

氣溫의急降下로
牛公感冒로騷動
定州郡下에罹病牛百餘頭로
道獸醫現場에急行

【新義州】 평북 정주군(定州)내에는 지난십사일부터 십팔일까지오일간에 이르는동안 소(牛)일백두마리가 병(病)에 걸리어 대소동을 일으키엇는데 병인을 조사하야본결과 사오일전 일기가 갑작이 냉해저서 이로말미암아 열이 사십도에 달하는 류행성감모(流行性感冒)에 걸린것이라는바 십구일 도의생과 고도수의가 현지에 급행하얏다한다

金基盤女史의
記念碑除幕式

【碧潼】 평북 벽동(碧潼)군 김긔반(金基盤)씨는 일즉부터 자선사업가로 일홈이놉던바 지난십팔일 당지동상동 예수교회에서는 씨의 헌성긔념비(獻誠記念碑)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하엿다는데 씨는 한여자의몸으로서도 일즉이 그사상이 고결하여 인생의 참됨은 오로지 배움에 잇다고 자각하야 사재를기우려 당지동상동(東上洞)에 사립학교를 신설하고 만흔 인재를 배양하던중 답(畓)일천육백평(시가 일천육백원)을 그학교에 붓처 다시 금륙백원으로 동상동 교회당을 단독신축하엿다고한다 이에일반은 그의 성덕을 찬미하여 마지안는다고한다

舊市街를中心
劇場設置運動

【平壤】 평양부내의 오락긔관의 일부인 영화와 연극장은 전부 신시가에 뭉쳐잇고 구시가에는 제일관(第一館)이 잇슬뿐이므로 무서운형세로 발전하는 구시가와 서평양(西平壤)에 연극장을 실현하고저 맹운동을 개시하고잇는데 구시가방면에도 그럿코 더욱이 서평양에도 영화 연극장의필요를 느끼고잇는만큼 일반은 실현을 갈망하고잇는터이라한다

택시料金달라는
運轉手를毆打
一時는大騷動

【平壤】 십육일오후 아홉시 사십분경 평양좌(平壤座)무대감독 김병덕(金炳德)(三七)은 견정유곽에서 계림(鷄林)택시ㅡ에 전화를거러 소형택시ㅡ를 불러다고 평양좌에 도라와 대금을달라는 운전수 김정진(金貞鎭)(三二)을 술이 취햇든 탓인지는몰나도 이층에 다리고올라가서 구타를하여 말성이이러낫스나 운전수는 그대로 도라가섯는데 평양좌에서 식도(食刀)와 함머ㅡ를 휴대한 오、륙명의 폭력단이 계림택시ㅡ를 습격하여 운전수등과 란투를햇슴으로 급보를 듯고 달려간 평양서원이 간신히 해산을 시켯는데 계림택시ㅡ의 운전수 김일(金一)(三二)은 손님의 운전을 맛치고 도라오다가 영문도 모르고 평양좌 폭력단에게 란타를당하여 중상을 바덧고 평양좌측 강달선(康達善)(三二)도 중상을당햇다 평양서에서는 관계자를 인치하여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孫、南兩君制霸記念
凱旋記念會創立
先着마라손코ㅡ스制定
—順天有志들의發起—

【順天】 백림에서열린올림픽대회에서 마라손에 영예의 일、삼착을하야 전세계를 흔들어노흔 손긔정(孫基禎) 남승룡(南昇龍) 량군의 영예와감격을 영원히 긔념하기위하야 지난십팔일밤 팔시반 순천유지제씨가 순천공회당에 회합하야 개선긔념회를 창립하엿다 동회의사업은 추후발표하려니와 위선제일차사업으로 차회동경올림픽대회(東京五輪大會)에는 반다시 제이손긔정、남승룡을출전시키기 위하야 적극적으로지도장려하되 순천려수간에 마라손 코ㅡ스를 제정하야 매년일회식 마라손회를 거행하기로하고 본회를더욱 유의의 하게하기위하야 이사업을 일순천에서만 운운할것이 아니라 전조선 만천하에 소개하야뜻잇는형제여러분의 열렬한응원을청하기로되엿다 또한이회의발회식은량군의 귀향을기달려 성대히거행하기로하고 이회의목적을 관철키위하야 다음과가티 위원과 간사를 선정하고 열두시경에 산회하얏다。

◇委員及幹事=委員長 李宗泰 委員 李榮春 金正基 任奎洪 金

◇幹事=鄭在煥

舍人少年總動員
優勝祝賀試合
마라손·蹴球等

【舍人】 우리반도강산에 태여난 남아의 긔상을 온세상에 현저히 황내여준 손、남량군의 우승을 무한이 깃버하야 남한군 사인시청년들은 지난 십구일에 전시내의 소년들을전부모아가지고 마라손대회와 축구시합을 개최하엿는바 세계제패에 자극을바든 시민들은 너도나도모히어서 성원을 하여주엇고 더욱이 청소년은 총동원으로써 그야말로 제패축하 시합전은 성황으로맛치엿는데 당일전적은 다음과갓다한다

◇……마라손……◇

一着朴利福(一四) 二着朴利植(一三) 三着金日鉉(一二)

八月海上에서
明太魚를漁獲
寒流로因한異狀

【元山】 명태어긔(明太魚期)가 아직도 먼오늘듯바 게낙시에 명태가 잡혓다는 해상이번의신긔한 소식 한토마ㅡ취근차호(遼洲)해상에서 낙시(釣)에명태가 만이 잡히여젓다는데 그명태는 알도성숙하야 명란(明卵)도 세통이나채조하야다고하는바 이것은례년보다두달이나 빨리현상이라고한다 이것은한류(寒流)를 따라고자호해상으로 몰여와가잡힌것이라고한다

民族的榮譽의
兩君戰勝祝賀

【熙川】 우리반도가 나흔조히간 전마라손왕의 손긔정(孫基禎)남승룡(南昇龍)양군의 민족적승리의 쾌보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흘러넘치게되여 오늘에잇서서 우리희천사회에서도 이환희의승리를 축하하기위하야 관민합동의축하회를 개최하려던중 지난십사일 강계방면에원정하얏든 희천축구단이 소향무적으로 우승개선하게되엿바 이것을기회로 지난 십팔일 오후네시부터 청천강반의 유일한 승적인 영파루(暎波樓)에서 전중의 축하회를 개최하엿는데 관공서간부이하 일반유지 약삼십여명이집합하야 손남량군의 민족적승리와 희천축구단의 설욕적 개선을 축복하고 만세삼창후에 폐회하엿다한다

乙亥組合理事
取調段落送局

【馬山】 귀보=마산부만정(萬町) 을해경제조합(乙亥經濟組合) 리사 김철조(金哲祚)(三)는 마산서에 검거되여 취조를당한다함은 귀보한바와갓거니와 지난일을 취조도 일단락지여 일건서류와함께 마산검사국에 송국되엿다고한다

浅野系의洋灰工場
今秋에工事着手
所要從業員만도數千名으로
沙里院一帶에影響至大

【沙里院】 근래사리원의발전에따라 사리원을 중심하고 동양제사(東洋製絲)와 일청제분(日淸製粉)등의 대소공장이 현저하게 늘어가고잇는현상인데 전부터 계획하야오든 천야계(淺野系)의 세멘트공장이 사리원에서 일리(一里)밧게 거리를두지안흔 토성면마동(土城面馬洞)부근에 세멘트회사(세멘트會社)설치를 확정하게되여 이미그부근에 토지매수한것이 칠만여평에 달한다하며 금추에 공장건설공사를시작하게되리라고하는바 이공장이 설치되면 적어도 노동자를 수천명사용하게될것임으로 사리원에잇서서는 적지안흔영향이잇슬것으로 관측된다고한다

釜山各婦人會蹶起
水害救濟金募集
一般의同情을熱望

【釜山】 이번의 대수해로 말미암아 사상자 칠백명과 가옥류실이천여호 전괴확실보가 칠수되여 주택에우는 동포가 수만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날로신문지상으로 보도되든지 어픔직한 수해이재민을위하야 구제금품의 모집이 발표되자 부산의 각부인단체에서는 때를 느추지 안코 솔선하야 십구일밤에 각각 긴급역원회를 열고 활동방침을 작정하야 본사부산지국의 후원하에 이십일부터 「주택에우는 수재동포를 살니자」는 표어하에 대활동을 시작하게되엿는데 일반은 만흔동정의 희사가잇기를 바란다는바 활동할 부인단체와 구역은다음과갓다

▲草梁町 草梁婦人會 女子靑年會 ▲瀛州町 瀛一婦人會 ▲大新町 西部婦人會

三湖
全朝鮮脚戲大會
◇時日 八月二十三日、二十四日兩日間
◇場所 三湖財書齋
◇主催 三湖商、務會
◇後援 朝鮮日報三湖支局

愛慾의彼岸 【81】
李光洙作 金康穆畫

김장로는 마츰 혜련이가 준상이와 이야기하노라고 뒤에떨어진것을 긔회로 문임을 향하야 직접 말을 부첫다。 그것은 꼭 안해가 되어달라는 간단한 말이엇다。 문임은 이간단한 청혼속에 충분히 성의와 열정까지도 볼수 잇는것 가탓고 또 그 동안에 김장로의 변령에대한 실흔 마음도 가시어서 도로혀 사랑에 가까운 호감을 느끼엇다。

「문임이 꼭 허락해주어。무엇이나 문임이 소원대로 다 해줄테야」

하고 김장로는 늙은 애인의 정욕을 느끼면서 물건으로 젊은 여성의 마음을 살수밧게는 업다고 생각하엿다。 그 말이 문임에게는 떠할수업시 가엽게 들렷다。

「고맙습니다、저 가튼것을」

하고 문임이 김장로에게 대답할 때에 문임의 눈 아페는 은주의 모양이 얼는거렷다。 문임은、숨이 막힐듯함을 깨달앗다。 그래서 고개를숙이고는말이 업섯다。

「그럼 내 말을 들어준단말이지?」

하고 김장로는 문임의 손을 떠들려하엿다。 문임은 한걸음 물러서면서、

「저는 약속한 사람이 잇서요」

하고 대답하지아니할수업섯다。 은주가 겨테 말업시 서잇는것 가탓다。

「약속한 사람?」

하고 김장로는 웃뚝 서면서、

「아니、혜련이 말이、아모도업다던데」

하고 눈을 크게 떳다。

「약속이라고까지 할것은 업지만」

하고 문임이 약속이란 말을 부인하려할때에 문임의 혀는 잘 돌지아니하엿다。

「정말야? 그게 누구야?」

하고 김장로는 말에 노긔까지 띄웟다。

「아닙니다。약속이라고 할것도 업지만 저를 따르는—무에라고 말을해야 올흘까—어티 그러한 청년이 잇서요。그이가 퍽 고적한 신세이고、그래서、—퍽 고적해서—그러길에、저도 동정이 가고—또 사람도 퍽으나 착한 청년이고 그래서、노상 아니하고 거절할수도업서서、말만이라도、제가、그이헌테 호의를 가진것처럼— 사실 호의도 가지고 잇습니다 마는—사람이 참되고 또 퍽으나 고적한 사람이니깐요。」

「그래 대관절 그 사람과 약혼을 햇단말야?」

「아닙니다。약혼이 무슨 약혼입니까。」

「그럼 서로 사랑을 햇단말야?」

하고 김장로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엇다。

문임은 잠시 말이 업섯다。

「아니 대관절 그게 누구란 말야?」

「설은주씨야요。」

「설은주?」

하고 김장로는 더욱 놀랏다。

「아니、저、상회에 잇는 은주말야?」

「네」

김장로는 어안이 벙벙하야 물끄럼이 문임을 보앗다。 하필 설은주가 괘씸하게도 생각햇다。

「그놈이 은혜를 모르고、그놈을 당장에 내어쫏아버리리라」

이러캐 생각할때에 이가갈림을 깨닷다。 만일 문임의 아버지와 악한 짓을 아니보앗더라면 하는 생각이 업섯던들 김장로는벌써 구르고 소리를 질럿을는지도 모를것이다。 문임의 아펀지라 록 참앗지마는 김장로는 숨결이 찰을 금할수는 업엇다。

그러나 김장로는 맷걸음 것는 동안에 도리켜 생각하엿다。 설사 문임이가 은주의 것이되엿더라도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것이엇다。

「어느새에、어떠케 은주를 사랑하게 되엇단말야?」

하고 김장로는 가까스로 섯난 기운을 진정하고 입을 열엇다。 은주와 문임과의 관계를 소상히 알고시펏다。

림질을 자택에서도 간단히 꼿칠수잇다

전염된때 곳치료하자
만성고질이되야 놀재발하는분은 정당한치료법을선택치못한까닭이다

東京日比谷病院長 醫學博士 深瀨用一

患者 림질에걸린지는 한 三四년되는데 내복약(內服藥)을장복하고잇스나 좃낫다가는 조금만 과음하든가하면 고름이나오고 고통을느끼게되며 요새가튼더위에는 더욱심하니 어떠케하면 조켓습니까

博士 내복약으로는 림질을 근치할수업는것이니깐 그러치요 독일의 유명한림질학자『와렐친박사』가 백단유(白檀油)를오래동안 복용한환자의 소변을 검사해보앗더니 림균이 오히려 만히번식되엿슴을 발견하고서는『내복약으로는 림질을근치할수업다』고 학계에발표한다음부터 림상의가(臨床醫家)들사이에서 내복약을쓰는것은 자기의무능을 들어내는것이 되므로큰수치로 알게되엿습니다 그후부터는국소료법(局所療法)이라고하는것으로 오줌줄기에 직접약을넛는방법을 써서 근치케하나니 이것은세계적으로공인되고잇는바입니다。

患者 하지만 내복약은 손쉽게 복용할수 잇는점이 조치안습니까

博士 그야 복용하기에는편리하다고해도 림질이 낫지안는데야 헛수고만되지 무슨리로움이 잇습니까 그뿐아니라 도로혀 위장을상하게되고 신장(腎臟)에서 피가섞긴 오줌이나오며 그외에도 여러가지부작용이 생기게되는것이니 구태여 생고생을 해가면서 효험업는 내복약을먹는 어리석은짓을할필요가 무엇입니까 이에대하여서는 내설명을 들을것도업시 당신자신이 경험하신것으로도 잘아실줄로 밋습니다。

患者 그러치만 국소약(局所藥)은 섭호선염(攝護腺炎)부고환염(副睾丸炎)등의 병발증이생기기가 쉽다고해서 아직써보지는 안햇습니다마는……

博士 물론재래에써오든 약중에는 그런수가만햇습니다。살균력이 박약하야 효험이업는것을 뇨도(尿道)에다 만히 너헛는것부터 틀녓지만 약의원료도완전치못하엿으므로 별수업시부작용이 이러나게된것이지요

患者 급성림질일때 마사용하면 되지안코 곳칠수업습니까

博士 약과병법만 알맛게하면야 급성림질을 곳치는것은 수월한것이지마는 내복약을 먹는다거나 이것저것하며 허둥거리는 동안에 림균은 속속드리퍼지게 되는것임으로 급성은 급성인때 국소료법(局所療法)으로 잘치료하면 쉽게 낫지못하는것이 아닙니다

患者 먼저도말슴드렷지만 고름이 멎엇드니 조금피곤하거나 과음하거나 절기가 이상한때는 재발하게되는것이 무슨까닭입니까

博士 만성이되면 그러한것입니다 림균이 뇨도(尿道)의 저리를 둘러싸고잇는 도톨한 해면체(海綿體)의 오목오목 드러간데와 육안으로서는 보이지안는 무수한 줄기에가 기피 파고 드러가잇스므로 이러케 되면 내복약은 말할것도업고 종래로써오든국소약을 느어보앗다 하드라도 림균을건드려 보지도못하는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피곤하게되는때마다 그러재발하게되는것입니다

患者 선생님말슴을듯고서 대개 아라드럿습니다 그럼 가장밋고서 써볼만한국소약이잇습니까

博士 내복약으로는 림질을 근치할수업다는것이 알게되자 각국에서 다투어가며 국소약을 만들어냇스나 살균력(殺菌力)이 약하므로신통치안코 섬달성(滲達性)이 업서서 가보잘것업는것이 종래의 써왓든약으로서 한때는 의사들도 손을대지못할것이라고 하엿든것이다

患者 의학이 진보되엇다고는해도 실제상으로 치료하는데는 별로 신통한것이업습니다그려

博士 그럴법한말이오마는 필요를느끼게되는것이 발명(發明)의어머니라고 한듯키 동경길원유곽(東京吉原遊廓)의 병원장(病院長)으로 일홈이 놉흐시든 좌등병 선생께서 재임중(在任中)에 유곽(遊廓)의 경찰병원이라 자연 수만흔 림질환자만을 치료하시게되면서도 의사의 양심상으로 자신잇는치료할길이업서서 십수년동안을 두고 고심연구하신결과로 일천배(一千倍)나 열게해서도 단이분간에림균을 몰살시키는 강렬한 살균력을가지고 뇨도심부(尿道深部)에속속드리 헤치고 드러가는『부라온銀졘고—루』를 발명하신것입니다。

患者 길원병원장의 고심발명하신것이라면 좃서볼만 한것입니까

博士 약이란것은 어느것이나 약리(藥理)와실제가 서로마저야 하는것인데 이것은유곽이라는 곳이 온세상에서모르는사람이 업다고할만큼 유명한곳이니 자연 모여드는 환자들이모다림질환자인데 이곳의경찰병원인 吉原病院에서『부라온銀졘고—루』로 수십만의 환자들을 치료하시어서 완전이근치되는 실험을내노시는때는 군소리를할거리가 업게됏습니다 나도 우리병원에서『부라온銀졘고—루』를 쓰고잇지마는 어느림상의(臨床醫)나、대개가다들 쓰는모양인데 예외가업시 다조흔효험을 본다고합니다 신수년이나된 만성림질도 절지해보앗고 한두해된것은 달포나 계속해서 치료하면 뚜렷한효험을 볼수가잇습니다 림사(淋絲)가 섞이어나오는것은 두어주일동안만지나면 깨끗해지드군요、이런조그마한 예는무수한것이나 엇더튼 일반인류(人類)의 보건상(保健上)으로보아서 실로위대한발명이라고 찬미안할수업는것입니다

患者 급성에도『부라온銀졘고—루』를 쓸수잇습니까

博士 급성에쓰는『졘고—루』가 따로잇습니다 올린지四五日된것이면 三四回나 쓰면 절대로재발할염려업시 근치됩니다 내복약이나 다른것으로 허둥거리다가 만성으로되여서 일생을두고 괴로움밧는분이 지금도잇게되다면 그런분들은 참으로 딱한분이라고 아니할수업습니다

患者 그러케 신효한 약이라면 사용법도 퍽 까다롭겟지요

博士 간단합니다 아조 손쉽게 할수잇스며 시간으론 단二分간이면됩니다 게다가 아무런 위험도업고 부작용이 업는것은 참으로 감탄치안흘수업습니다 전기료법(電氣療法)이나 주사료법가튼것도『부라온銀졘고—루』에비할것이아닙니다

患者 나는 일이만허서 매일가치 치료를 받을수는 업는데요

博士 내가 개업을하고잇스면서 말할수 업는 노릇이나『부라온銀졘고—루』는 구태여 병원에 올것업시 자택에서도 능히 손수 치료할수잇도록 되는것입니다 당신의 병세는 대단한악성이지마는 관계치안흘것입니다 틀림업시 근치될것을 장담할수잇스니 엄중한 조섭과함께 잘계속만하십쇼

E—129

림질환자께기뿐소식

병구에 속히버서나실여러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 조선일보독자라고하시고 조선국문으로 병세를통지하시면 최선의방법을알니워드리며 특히송료를부담하야서 대금인환으로도송하여드립니다

定價 二五瓦入(十七日分)三圓八十錢 五○瓦入(卅五日分)七圓

普及用 급성용 만성용 부인용 一圓九十錢

자택치료서무대진정

東京市芝區三田四國町 日東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三三九四三番

京城新井藥房、木村藥房 釜山 大黑南海堂 全鮮藥房에서販賣함

K—134

朝鮮內金融體系

普通銀行統制의强化는 第二階段의展開現象?

●……中……

◇……오래동안 中斷되엿든 것을 繼하며 다시 普通銀行의 問題를 가지고서 그統制를 살피랴고한다……◇

×

朝鮮內 金融機關의 體系를 엿보아서는 日本內地의 金融體系와 가튼統制를 밟어온 것을 알수가잇다 그런데 이것은 一般的으로 當然한 現象이라고 생각할수가잇다 그러나이곳에서한가지를 드러가 그體系의 實情을 살펴보면 日本內地와 顯著히 다른 色彩를 띄인 特殊的事情도 잇슴을 發見할수가잇다 即

(一) 特殊銀行이만흔 그特殊的機關이 잇슴 [illegible]바이다 그러나 이뿐아니라 朝銀, 殖銀은 一面으로 商業金融의 職分까지 가추고 잇는點

(二) 그밧게 英國의 東印度會社와가튼 東拓의 商業金融이 儼然히 介在되어 잇는것도 日本內地에 잇서 볼수업는現象。

(三) 그러고 朝鮮이 아니고는 차질수업는 金融組合이 散在한點

(四) 日本內地의 民間有力銀行支店이 朝鮮까지 손을 펴고 잇는點。

×

以上이 [illegible]

의出現으로 因하야 그威壓이 一層 加重을 보게되고 말엇다 더구나 압에로 이미 말한바와가티 全朝鮮의 坊坊谷谷에 金融組合이 散在한것은 朝鮮의 特殊的事情이다 이와가튼 特殊的事情아래서 生長되어온所謂 地元(地場)普通銀行은 오늘에잇서서 어떠한立場에 잇는가하면 그進路가 매우 險惡한點에 잇는것을 알수가잇다 [illegible]

[illegible]

(二)目下 日本內地의 一縣一行主義를 [illegible] [illegible]

朝鮮景氣打診

反動徵兆가不無

輸移入의增加로貿易繼續逆調

土地賣買도冷却傾向

近年以來의 朝鮮은幸히 産業經濟의 各分野에잇서서 數字的好轉을 招致하얏는데 今年에 드러가 貿易의逆調를 筆頭로 深刻이 豫想되는 凶作이잇고 今年下半期末부터 明年에亘하야 所謂朝鮮景氣에도 相當히 痛烈한 反動을招致할것이라고 憂慮된다。

◇

景氣의 바로메타인貿易은今年에入하야 逆調가 甚하고 對外、對日本內地共히 記錄的大輸移入을 示한一面 一方朝鮮內購買力에 重要한 關係가잇는 農作은 日本內地의 豐作에 不拘코 朝鮮凶作의 傾向이 顯然하다。

◇

그리고 農林關係로는 土地賣買가 水禍에 依하야 冷却되고 工業의 旺盛 進出도 出鈍된 觀이잇다。

◇

勿論 繼續工事及 土木關係事業、鑛業과 工業關係의 活況은 어떤 程度까지 繼續될것이 豫想되나 以上의 傾向으로 相當한 反動은 不可避로 볼것이다。

本政府와의 通商會商의再會에無關하는데 羊毛業者 牧畜業者는 會商의再開를 熱望하며 二十日兩者共同委員會에서 다음의聲明書를 發表하고 問題解決의促進

朝銀監督權 整理後還元

林財務局長談

朝鮮銀行은 朝鮮의 中央銀行이니 그監督權을 總督府에還元함이 當然한일이나 整理가大藏省손에서 進行되는中이니 그 完了까지는 當分無望한일이다

夏秋繭基準價格

大體前年同樣協定說

朝鮮內夏、秋繭의基準價格協定은 例年八月廿五、六日頃 總督府에서 열리는데 今年은 八月의播立時期에 降雨가 繼續한때문으로 各道에播立을 中止하고 昨今 播立最盛期에 드러간程度로 例年에比하야 約一旬이 遲延한 때문으로 結局 九月五、六日頃 열릴모양이다 基準價格協定率은 昨年에 比하야 絲價가 約卅圓高의七百六十五圓이 昂騰한程度로 그밧게는 들만한材料가 업[illegible]少의減産은 免치못할모양이라고 한다

金五로 于先 前年과同條件으로 協定될모양이다 昨年의協定은 絲價七百三十五圓中心의境遇、生産費二百五十五圓으로보아 三十掛이다

恩給金融

實現을企圖

【東京電話同盟】政府는 지난第六十四議會에서 恩給法의改正을 한바 此際에 빨리 恩給金融의方途를 講究함이라는希望條件을 붓친主旨에鑑하야 恩給局에서 具體化를考究中이더니 이번恩給局은 大藏省 遞信省과 한가지로 그實現을圖키로되야 이에드는 經費百萬圓을 來年度豫算으로 要求케되엿다고한다

日滿會商再開

要望共同聲明書

【東京電話同盟】滿洲政府는 羊毛의出廻를 目前에 압두고 日[illegible]을 要求하엿다 政府는 어떠한 對策으로 日本政府와 折衝하야 問題의解決에 當할는지가 不明한바 吾等羊毛業者로서는 滿洲政權이 반듯이 英國產業保護政策을 抛棄치안코 日滿雙方이 合理的 對策을 베풀기를 進信한다

白金續騰

市價天井不知!

天井不知인 京城市中 白金價는二十一日에는 賣二十一圓八十錢으로 前日보다 또一圓八十錢高、買十九圓五十錢으로 二圓의 各暴騰하얏는바 이는東京市中市勢에마추어 同價로세운것이라하며 京城市中서도 小口의賣가만타한다

夏秋繭減收說

降雨水害의影響

今年度 朝鮮內夏秋蠶收繭豫想은 目下總督府에서 調査中인데 播立이 豫想의四十二萬六千二百六十枚(前年에比하야五分七厘增)보다 降雨水害로 減少하야 反對로前年보다 多少減少할모양이다 그럼으로 今後의天候如何에 依할것이나 順調로가면 前年과 同量이고 惡化하면 現在와가티 早冷이 懸念된다면 多

重要商品界事情

人絹生絲原價 高騰傾向이顯著

人絹의生産統制는 非加盟의關係로 完全케되엿고 따러서압흐로는 生産統制에 依하야 需給의均衡을 保持케될것이므로 市價의 動搖가 적게될것이며 적어도 市價의暴落은업게될수잇다。

◇

그런데 原價에잇서 將來가 생기는것이 即人絹原料인 펄프의供給不足問題이다 가령 明年의人絹生産高를 三百八十噸으로하고 파이바一二百噸(計量)合計五百八十噸의 人造絹絲를 만들기爲하야 原料펄프는 廿七萬噸이 必要하다 現在 日本內地의 供給量은 約五百噸、輸入펄프는 米國에서 十萬噸、北歐에서 十二萬噸의 豫定이므로 供給은 넉넉지못할는지 모른다 이와가튼事情이 現在에 펄프市價를 세이게하고 따라서 硫酸、苛性曹達、二硫化等의 原料藥品價는 漸次 노파가는傾向을 보힌다。

◇

그러므로 人絹의生産原價가 노파지게됨은 必然的結果이다 요새市價의 回復은 다만 減産 輸出의 好勢로 因한것이 아니라 原價的意味도 잇슴이 看過할수업는點이라고…

歐洲小麥生産

過去四個年以來最少

米國農務省農業經濟局은 지난十七日 歐洲의 小麥生産豫想을 發表하엿는데 그要旨는 다음과갓다 歐洲의 小麥生産高는 十四億九千二百萬부쉘로 豫想으로 過去 四個年以來의 最少量이다 다뉴브沿岸諸國의 生産高는 昨年度의 三億二百萬부쉘에 對하야 今年은 三億五千九百萬부쉘 即五千七百萬부쉘增으로 槪算되고 다뉴브沿岸諸國의餘剩은 生産國生産不足을 充케될것이다 그러나 느나라는 얼마를 在荷를 놀게하라는意向을 가지고잇슴으로 歐洲諸國의 小麥輸入은 顯著한增大를 보게될것이다

朝鮮內紡績事業

逐年增加가顯著

大工場進出이繼續

朝鮮의 紡績事業은 年年進步되는바 總督府商工課의 調査에依하면 昭和九年末에는 一百三十四工場에 不過하엿든것이 十年末에는 다시 大工場만으로 十二工場이 늘고 出産高도 八年末五千二百萬圓에 不過하엿든것이 九年末에는 一千萬圓이 늘어 六千二百萬圓으로되고 十年末은 아즉 統計가 안되엿스나 아마 八千萬圓에 達할모양이다 이것은 水質其他工場設置適地가 만흔點 外에 勞銀이 低廉하고 統制法의 法域外에 잇는때문으로 日本內地의統制를 免케되며 市場의 確保、工場法이 施行되지안는等에 基因한것으로 今年에들면서 鐘紡 日本紡 東洋紡等이 新義州 大邱 永登浦 平壤에 進出計劃中으로 이미 一部는 工場建設을하는狀態이라고 한다

東拓伐木事業

東拓의森林業은 目下 朱乙溫可山의伐木中인데 이미 七萬五千石을 伐木하고 今後四萬石의伐木豫定인데 이것은 主로日本內地及南北中國에 輸移出하고잇다 그리고 五峯山은 目下 二萬五千石을 伐木하는데 아즉도 二萬石을 伐木할豫定이라고

米移出增

今月中旬總數量

【廿一日總督府發表】八月中旬의米移出은 十五萬餘石으로 前年同期보다 六萬餘石의增加、昨年十一月以後 累計는 九百三十九萬八千餘石으로 前年同期보다 卅三萬六千九百餘石의增加

	中旬	十一月後累計
輸出	[illegible]	[illegible]
移出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移入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粟輸入續增加

그리고 中旬의粟輸入은 三萬千餘石으로 前年同期보다 九千八百餘石增이며 昨年十一月以後累計는 百十八萬六千餘石으로 前年同期보다 廿萬三千餘石의增加

米日爲替弱保

【經濟二十日發同盟】二十日의 米日爲替는 前日과 比較하면 賣二十九弗四十八仙으로保勢 買二十九弗四十六仙으로 一仙低이다

取引停止 (八月十八日)

▲食料品商 京城府敎義町七四番地 宋榮大 ▲電話賣買商 京城府義州通二丁目一七七番地 金英商會 金泳珍 ▲運送業 京城府淸凉町一七五番地 南宮練 ▲雜貨商 京城府本洞町一丁目一番地 車圭鴻

停止解除 (八月二十日附)

▲京城府壽松町二六番地 鮮光印刷株式會社長 吳鼓泳

經濟界消息

○朝鮮"特殊景氣"에 反動說擡頭

○所謂 好景氣의 恩澤을 白衣人이 얼마나 입엇나 도리혀 反對傾向이 잇섯슴은 事理自明하얏던일

○그나마 景氣反動 云云 不景氣打診을 더바들것은 好景氣때 利益본 白衣人이것스니 걱정

○近來 金融統制流行으로 朝鮮金融界에도 "데마"續出

○日 朝銀券廢止說、日 朝銀監督權 總督移管說 等等

○그럼 뭇 하다고 미리 放送은 지나치는일。

○일에는 順序가 잇고 時期가 잇고 境遇가 잇는 法

○東拓定時總會四分配可決=東拓에서는廿一日 午後二時부터 東京本社에서 上半期決算總會를 열고 年四分配當案을附議可決하엿다고

○金組聯合理事總改選=金融組合聯合會의 理事는 全部八月中에 任[illegible]

國策脅威時代

國策이 決定될에는 議會의 協贊[illegible]

今日財界 (廿一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 價 三等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illegible]

阪仁當中軟勢

拂下의關係로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illegible]

大阪國債市場

[illegible]

當分保合乃己

豐凶判斷까지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少弛

期米不振明과拂下豫想으로 買付지안코 氣配五錢低唱이엇다 ㊁三等三一、五五 四等三一、一五 一等白米一三、〇〇

仁川軟弱

二十五日의委員會待로 一般이必要以外는買치안코 期米不昧와相俟하야 唱은五錢少擬이엇다 ㊁三等三一、五五 四等三一、二五 一等白米一三、六五

釜山鈍調

適價에는賣米側에 買拾되나 定期伸悩로 市況不立이오 鐵價하야 五錢軟化이엇다 ㊁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一三、八〇

大邱閑散

拂下警戒로一般이 躊躇이나마 持米側은 先高觀으로 無碍히떠러지지안코 市況은極히沈滯이엇다 ㊁三等三一、二〇 四等三〇、九〇 一等白米一三、五〇

群山少弱

依然産地高張이나마 期米의 鈍調로 買物이不振이오 市況沈靜裡에 推移되어

木浦引締

定期側의適品買漁와作況念慮로 市勢는 定期低에 不拘코 十錢引締를 告하얏다 ㊁三等三一、一〇 四等三一、八 一等白米一三、〇〇

四等級은 五錢低唱이다 ㊁三等三一、〇五 四等三一、九 〇一等白米一四、〇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期米 下漲이나 不勢

前場少弛

[illegible]

後場不勢

後場은三十圓三[illegible]

株式 東新單獨 再落

商況 (廿一日)

[illegible]

前場不變

[illegible]

後場東新低

[illegible]

北濱情報 【阪電話】

[illegible]

依然夏枯閑散

[illegible]

㊑……東新은 突込警戒와下値는 利喰으로 意外下支頑强이오 上伸의潛勢力이잇서보이기도하나 市勢自體는依然彈力性이缺如 ▲雜株整理一巡後에國策의輪廓이決定되면 가을市勢의序幕이展開될것이 常識論이다

㊟……今前場中 朝取仁川市場에는 [illegible]

㊍ 仁川 康盛商店 ㊑ 金益證券 株式會社

光皿

朝取取引員 アジア證券 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リ三ノ二・日生ビル

金.銀.白金 貴金屬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3939 京城府明治町